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인재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0-649193 (예금주: 동국대학교)
후원문의 : 02-2260-3300(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2월 14일)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1월 17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밝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사진=김내영 기자

"2024년 '선명상 보급 원년'으로" 천명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년기자회견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비롯해
명상센터 건립·명상법 개발 집중
국제선명상대회도 9월 말 개최
"불교중흥·사회적 역할에 진력"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올해 가을 국제선명상대회를 기획 중인 조계종이 갑진년을 '선명상 보급'의 원년으로 천명했다.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시범 운영을 비롯해 선명상 중앙지원센터 건립 추진,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등 불자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기 2568(2024)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선명상 보급을 중심으로 한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은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이후 공·사석을 불문하고 강조해온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방점이 찍혔다.

"천년을 세우는 간절한 원력으로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을 열겠다"고 한 해 종단운영 기조를 밝힌 진우 스님은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시범 운영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스님은 "각박한 일상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각종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갈 것"이라며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결되도록 '선명상 템플스테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지난해부터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선명상을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해 호흡법과 숙련자를 위한 심화과정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 전수조사에 착수했을 정도로 종단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진우 스님은 △우울할 때 마음을 챙기는 선명상 △화를 가라앉히는 선명상 △시험을 앞두고 정신을 맑히는 선명상 등 다양한 상황별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과 정신적 회복이 꼭 필요한 분들께 먼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오는 4월 종단 공식 선명상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시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사찰 20여 곳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용 안내 전화 개설 등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지도법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중앙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 준비와 기본계획 수립도 진행할 예정이다. 9월에는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K-명상 활성화와 세계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2024년 한국불교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사회적 정진을 시작한다"고 역설했다.

국제선명상대회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TF팀을 구성한 뒤 기획사가 선정되면 국내외 명상전문가 섭외를 비롯해 주요 지역별 체험행사 기획도 진행된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명상프로그램 전수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과 선명상 지도자 양성과정 설계, 명상플랫폼 구축 계획안까지 마련한다는 게 종단 목표다.

진우 스님은 지난해 시행한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제도 안정화를 통해 전통 문화유산 전승에 힘 쏟는 한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실 수 있는 방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단 개혁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자승 대종사의 유훈이기도 한 청년전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을 연내 완공하고,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의 1동 기념관은 서울 봉은사 일원에, 2동 치유시설은 안성 아미타요양병원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연내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정말 많은 사업들이 올해 조계종단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불교중흥과 사회적 역할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며 "갑진년 한 해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고요하다면 늘 행복하다'는 상락아정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조세이 탄광 첫 국회 토론회
관음종 숨은 노력이 이끌다

국회서 사진전, 토론회 개최
조세이 탄광 아픈 역사 알려
관음종, 강제징용 유해 환국
2017년부터 희생자 위령재
한일서 유해 환국 여론 주도
올해도 3월 현지서 위령재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아픈 역사다. 1942년 2월 3일 해저탄갱인 일본 우베 탄전의 조세이 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조선에서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일본은 전쟁 중이어서 보도 통제가 심해 일반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배상과 사과는 없었고, 183명의 유해 발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월 15, 16일 조세이 탄광과 관련해 유의미한 행사가 국회에서 잇달아 열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우원식·김성주·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은 한일관계사학회,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족회, 조세이 탄광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와 함께 1월 15일 이재갑 사진 기획 초대전 '그들은 아직도 바닷물 속에 있다' 개막식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개최했다. 1월 19일까지 진행된 전시회는 조세이 탄광의 아픈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로 구성됐다.

다큐 사진작가 이재갑 씨는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노력해 온 분들이 있음을 알리고, 나아가 동참을 통해 좀 더 근원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함을 인식시키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는 '조세이 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은 김인수 대구교육대 교수, 이경미 동북아재단 연구위원, 한혜인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 연구위원, 김동명 국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들이 이뤄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진전의 배경에는 불교계, 특히 관음종의 숨은 노력들이 있었다.

2015년 제18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 히로시마 대회에서 당시 서장은 히로시마 총영사가 한국불교계에 조세이 탄광 희생자를 위한 위령재를 요청했고,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듬해 1월 30일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위령재를 일본 우베에서 봉행했다. 이후 지속적인 위령재 봉행의 필요성을 인식한 종단협은 관음종에 위령재 사업을 제안했다. 관음종이 2015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무연고 영골들에 대한 환국사업을 펼치기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를 승낙한 관음종은 2017년부터 매년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관음종의 이 같은 노력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여론 환기에 큰 도움이 됐고, 일본 현지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일본 중의원 회의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유해 발굴 관련 질의들이 이뤄졌다. 수몰사고 희생자 위패가 봉안된 우베 서광사의 주지 스님은 지난해 처음 관음종 위령재에 참석해 향을 사르고 희생자 추모에 동참했다.

관음종은 "한국의 국회 토론회와 사진전을 비롯해 일본 현지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도 3월 26일 일본을 방문해 위령재를 봉행할 예정"이라며 "조세이 탄광의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의 유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과거천년 미래천년
천년을 세우다
희망의 미래불교를 열어가는 길에
사부대중의 수희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 선명상프로그램 개발 • 명상센터 설립
✓ 미래세대 인재양성(어린이 • 청소년 포교지원)
✓ 교구(지역불교) 활성화
✓ 출가 장려 운동 전개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천년을 세우다」 후원동참 : 농협 301-0248-0882-41 (예금주 : 아름다운 동행) ■ARS : 060-700-0012 (한통화 3천원) ■열암곡 천일기도 : 2023. 4. 28(금) - 2026. 1. 21(수) / 기도접수 : 전국 사찰종무소 ■문의 : 02-6273-0108(아름다운 동행)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내영 기자

종단 내실 다져 불교중흥 기틀 마련

키워드로 본 진우 스님 신년기자회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첫 신년기자회견 초점이 소통과 복지, 문화를 토대로 한 성장 동력 마련에 맞춰졌다면 올해는 종단 내실을 다져 불교중흥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진우 스님은 기자회견 첫머리에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선명상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조계종은 이뿐만 아니라 그간 계속된 현안 해결에도 종단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출가 장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탈종교화 심화에 따른 종교인구 감소, 이로 인한 출가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범종단적 출가장려 정책을 펼친다. 교육원과 포교원, 미래본부가 합심해 추진하는 출가장려 정책은 행자 관리 시스템 점검 및 개선부터 추진된다. 교육원은 행자입문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출가행자 상담제도 시행, 행자교육기간 제도변화 모색에 나선다. 종립학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군종교구, 교법사단과 함께 연합행사에서의 출가 안내와 강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미래본부와 협업해 출가 다큐멘터리 제작, 출가에세이 및 법문집 배포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포교원은 청년·대학생 계층 출가 홍보 확대 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불청 만해백일장에 출가부스를 운영하고, 젊은 계층이 모이는 공간에 출가 콘서트나 전법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경주에서 연 대학생과 출가상담사 대화의 장을 올해는 전라도에서 연다. 미래본부는 책자와 동영상, 브로셔 등으로 출가장려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고, 출가재일을 활용한 출가의 공덕과 의미를 알리는 데 힘을 쏟는다.

승려복지 조계종의 승려복지는 지난해 종단 직영의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 개원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올해에는 승가 공동체 안정화를 위한 승려복지 확대 작업이 추진된다. 아미타요양병원은 신축병동 건립이 시작되며, 스님 전문 집중치료실과 전문병동 마련에 나선다. 스님들을 위한 상담 및 운영시스템 개선과 전문인력 수급체계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승려 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연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승려복지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승보공양 후원모금을 위한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모금 활동도 과거보다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제도개선 전통문화 관련 국가제도 개선 작업은 각종 규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사찰 경내지 지목 문제와 전각의 불법건축물 낙인 등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가기 위해 국가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제22대 총선 이후 꾸려질 국회정각회와 워크숍도 추진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공원문화유산지구, 전통사찰보존지 등의 의제를 다루고, 사찰림의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등이 진행된다. 문화재관람료에 대해서는 탐방압력 증가에 따른 사찰별 환경진단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한다.

전통문화 홍보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 홍보는 올해 거점시설 마련과 해외행사가 주요 사업이다. 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연등회 전승관'은 상반기에 부지를 확정하고 건립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는 시설건립 방안과 운영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다.

출가장려
교육 · 포교원과 미래본부 협업
청년연합행사 출가 안내 비롯
출가장려 콘텐츠 제작해 보급

승려복지
아미타요양병원 신축병동 건립
전문인력 수급체계 마련 계획
승려주거복지 정책수립 논의도

국가제도
전통사찰 각종 규제 해소 중점
22대 국회 출범…정각회와 논의
사찰 환경 모니터링 지표 마련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 임명

1월 17일, 진우 스님 임명장 수여
"종단 발전 · 전법에 더욱 힘쓸 것"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사진 오른쪽).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에 무자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무자 스님의 임기는 2월 11일부터 4년간이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무자 스님은 종단과 본사 운영에 경험이 많아 좋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송광사는 그야말로 '승보종찰'이다. 승보종찰의 위상에 걸맞은 적임자(무자 스님)가 임명됐다.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자 스님은 "송광사는 승가 가풍을 잘 지키고 있는 사찰이다. 16국사를 배출한 근본 도량으로서 열심히 정진하겠다"며 "종단 발전과 전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무자 스님의 주지 임명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한 전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은 "송광사 주지 소임이 만만치는 않다. 새벽예불부터, 사시예불, 발우공양, 저녁예불까지 모두 참석하는 것은 물론 대중들과 함께하는 업무가 많다. 방장스님도 잘 모셔야 한다"며 "어려운 소임이지만 잘 이끌어 가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힘들겠지만 (무자 스님은) 방장스님을 잘 모시고 대중들과 조화롭게 잘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송광사는 승보종찰 가풍이 잘 살아 있다. 청규나 규율면에선 타 본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스님들의 본래면목"이라며 "부처님 법에 입각해 전통을 잘 이어가고, 새로운 사회문화도 수용하면서 발전하는 송광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명식에서 무자 스님은 종단 핵심 종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5000만원을 전달했다.

무자 스님은 일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쌍계사에서 고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3·14대 중앙종회의원과 길상사·적철사·안흥사 주지를 지냈다.

김내영 기자

관음사 차기주지 허운 스님 사실상 당선

1월 15일 402차 회의서 심사
산중총회 구성원 58명도 확정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차기 주지 후보 허운 스님이 사실상 주지로 당선을 확정, 3연임하게 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중앙선관위)는 1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402차 회의를 열고 제주 관음사 주지에 입후보한 허운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회의에서는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비구 39명, 비구니 19명 등 총 58명을 확정했다. 허운 스님은 단독후보로, 산중총회 성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지로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또 2월 2일 오후 2시 열릴 회의에서 쌍계사 산중총회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구성원 명부를 확정키로 했다.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2월 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율원)과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법제)의 사직에 따른 제18대 보궐선거 일정도 확정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19~21일이며, 보궐선출일(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은 3월 13일이다. 기타안건에서는 최근 우송 스님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3교구본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임은호 기자

대원아카데미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출석 교육)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에 필요한 학점 취득 가능
학습과목
정신분석학(심리학 전공/ 3학점/ 목요일)
인지심리학(심리학 전공/ 3학점/ 금요일)
주 1일(목 · 금) 14:30~17:30, 15주
신청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수강료: 100,000원(과목당)

학점은행제 과목과 평생교육과정 동시 수강 가능
○정신분석학(학점)+명상지도사(평생교육과정) 수강료: 30만원
○인지심리학(학점)+심리상담사(평생교육과정) 수강료: 30만원

◎ 평생교육과정
모집과정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출석 수업
(수) 13:00~17:00
(목 · 금) 13:00~17:30
수강료: 300,000원(학기당)

○ 공통과목: 명상과 (생명)과학, 불교란 무엇인가,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서양에서 보는 불교, 뇌 과학과 마음, 명상심리학, 명상과 치유 등
○ 전공과목: 명상의 이해와 실습, 정신분석학, 불교수행과 심리치료, 인지심리학, 위빠사나 이론과 실습, 마음챙김의 이론과 실습,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상담심리학, 사마타 이론과 실제, 불교심리학, 불교상담의 이론과 실습 등

디지털대원아카데미(온라인 교육)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
모집과정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온라인 수강
(수) 13:00~17:00
(목 · 금) 13:00~17:30
수강료: 200,000원(학기당)

○ 교수진
박재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명상학 박사
신경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심신통합치유학 박사
이승욱
닛부타의 숲 정신분석클리닉 대표, 심리분석학 박사
이한구
경희대 석좌교수, 철학박사
최일호
서강대 평생교육원 교수, 심리학 박사
황수경
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겸임교수

○ 특전 및 혜택
성적 최우수 장학금: 수강료 100%
성적 우수 장학금: 수강료 50%
스님 등록 시, 수강료 50% 할인
가족동반 등록 시, 1인 수강료 50% 할인
수료자 재등록 시, 수강료 50% 할인
2개 과정 동시등록 시, 1개 과정 50% 할인
민간자격(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취득자격 부여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대한불교진흥원(www.kbpf.org)
접수 기간
평생교육과정: 3월 6일(수)까지
학점은행제: 3월 7일(목)까지
디지털대원아카데미: 3월 13일(수)까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0 다보빌딩(BBS불교방송) 3층(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도보 50m)
문의: (02) 707-107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 www.kbpf.org

자승 대종사 49재 엄수…“전법 유훈 실천”

조계종, 자승 대종사 재적본사 용주사서 봉행

총무원장 진우 스님 비롯 각계 주요인사 다수 참석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11월 29일 원적에 든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이자 상월결사 회주인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49재를 맞아 사부대중이 대종사가 남긴 가르침과 유지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6일 자승 대종사의 생전 재적본사인 제2교구본사 화성 용주사 관음전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49재’를 봉행했다. 49재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스님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와 원로의원 스님들, 전국교구본사주지스님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의원스님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과 비구니스님들, 대종사가 총무원장 재임 당시 신설한 사회노동위원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과 각 단체장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또한 정관계를 대표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이원욱·박광온·김영진·백혜련·김승원 의원, 오영훈 제주지사 등도 함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자승 대종사 영전에 헌다하고 있다.

49재는 명종을 시작으로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의 헌향,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헌다가 이어졌다. 이후 종사영반은 어산종장 덕림 스님과 도피안 스님이 집전했다. 사부대중은 자승 대종사 영전에 삼배를 올리며 대종사가 생전 강조한 전법의 가치를 되새겼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참석대중을 대표한 추도사를 통해 지난 49일이 어느 누구에게도 일상적인 시간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의 2600년 역사와 한국불교 1700년 역사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면서 선지식의 안목과 대중의 지혜가 모여 일신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런 명안종사와 지혜대중의 법고창신 정신이야말로 불교사를 이끌어온 저력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는 부처님 가르침은 자승 대종사의 ‘전법합시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또 “혹여 일신의 안위에 안주하고 싶은 중생심이 터럭만큼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때마다 당신께서 온몸으로 일러주신 사자후를 거듭 상기해야 한다. 결국 기억하고 따르는 것은 남아있는 대중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끝으로 ‘타로첨류귀대해(墮露添流歸大海)하고 비진착토합고산(飛塵着土合高山)이로다’라는 짧은 두 줄의 시를 올리며 자승 대종사 49재를 장엄했다. 스님은 “떨어진 이슬방울은 흐르는 물에 더해지면서 큰 바다로 돌아가고, 날아다니던 티끌 먼지는 흙과 인연을 맺으면서 태산에 합해지네”라고 부연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참석대중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주신 큰 뜻을 저희 문도들이 전 종도와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참석대중은 생전 자승 대종사가 강조한 가르침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삼창하면서 49재를 마무리했다.

“대종사 유지 이어 대학생 전법 진력”

서울 봉은사도 49재 봉행…1천여 대중 참석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참석 7재까지 전통의식으로 챙겨

“자승 대종사이시어! 속환사바하소서!”

지난해 11월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 대종사를 보내는 사부대중의 슬픔이 서울 강남 봉은사 경내를 채웠다. 그러면서도 사부대중은 자승 대종사가 남긴 유지인 ‘대학생 전법’ 원력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월 16일 경내 법왕루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49재’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한 이날 49재에는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중앙종회의원 심우·선광·삼조·일화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채석래 동국대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자승 대종사와 생전 인연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태영호·유경준·손석준 국회의원 등이 49재에 참석해 대종사를 추모했다.

49재는 명종 5타로 시작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돈관 스님의 헌향, 호산 스님의 헌다가 이어졌으며 대중을 대표해 전 포교원장 지홍 스님, 비구니 원로 운달 스님, 최진식 봉은사 신도회장, 이명숙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이 자승 대종사 영전에 꽃을 올렸다.

입정 이후에는 자승 대종사의 생전 육성 법문이 이어졌다. 생전 육성 법문은 자승 대종사의 2013년 총무원장 신년사, 2017년 신년간담회, 2013년 제34대 총무원장 취임사, 2023년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사로 이어졌고, 사부대중은 대종사가 제시한 전법과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상월청년합창단과 봉은국악합주단은 자승 대종사를 추모하며 열반송과 무상게 등의 조가를 합창했으며, 조계종 어산종장 동환 스님은 화청으로 대종사를 기렸다.


봉은사 경내에서 도량잡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종사영반 의식이 이어지자, 참석 내외빈들은 자승 대종사의 영전에 헌화하며 대종사를 추모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49재에 참석한 내외빈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자승 대종사의 유지인 ‘대학생 전법’ 원력을 계승·발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원명 스님은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회주 스님의 초재부터 49재까지 모실 수 있었다”며 “오늘 49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례를 전통의례에 맞춰 여법하게 모시려 했으나 그동안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비롯한 봉은사의 대중들은 회주 스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하신 ‘전법, 특히 대학생 전법 포교에 진력하겠다’고 종단의 스님들과 불자들 앞에서 약속드린다”면서 “슬픔을 극복하고, 회주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법선언 제창 후 자승 대종사의 위패와 영정은 법왕루를 나와 봉은사 도량을 돌며 사부대중에 마지막 인사를 전했으며, 소지의식을 진행하며 49재는 마무리됐다.

자승 대종사 49재에 참석한 대중은 대종사의 유지인 ‘대학생 전법’을 이어나겠다는 의지들을 공히 피력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자승 대종사의 일평생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실천행으로 살아가셨다. 대종사가 던진 전법의 화두를 사부대중들이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다. 49재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자승 대종사께서는 대학생 전법과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를 생전에 강조하셨다. 앞으로 대학생 전법에 사부대중이 온 힘과 정신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상월결사에서도 대학생 전법 관련 운영과 동아리 창립 및 지원 등의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내일 열릴 이사회에서 최종적 결론을 짓고, 전법불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우 봉은사 대학생법회 회장(21)과 박채현 부회장(21)도 대학생 전법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동국대 학생이자 봉은사 대학생법회 회장으로서 대학생 전법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자승 대종사의 모습을 친견해왔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컸다”면서 “앞으로 봉은사 대학생법회 회원들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해 불교 중흥을 이루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저희 대학생 불자들이 대종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처님 법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상월결사 이사장 돈관 스님 선출

사무총장 일감 스님 임명 사무실 개소…불사 본격화



사단법인 상월결사 신임 이사장에 돈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사단법인 상월결사(이하 상월결사)는 1월 17일 봉은사 구생원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자승 대종사의 원적으로 공석이 된 이사장 선출이 이뤄졌다.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출된 돈관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자승 대종사가 던진 ‘대학생 전법’의 화두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스님은 “상월결사에는 저보다 공적이 많은 분이 많다. 그래서 이사장직을 맡아도 되는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일을 덜 했으니 더 많이 일하라’는 자승 대종사의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른이 남기신 화두인 한국불교 중흥, 대학생 전법 불사에 매진하며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상월결사는 법인 사업 전반을 책임질 사무총장에 일감 스님을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일감 스님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인사 안건 처리 후에는 대학생 전법위원회 운영규정을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받아 승인했고, 이어진 기타 안건에서는 이사들의 건의가 개진됐다. 덕문 스님은 “이제 대학교가 새내기 입학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된다. 법인에서 진행하려는 불교동아리 지원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산 스님도 “현재 대학 불교동아리들이 상월결사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법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 절차도 복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상월결사는 정기총회 직후 법인 사무소 현판식을 열었다. 법인 사무소는 봉은사 인근 상가건물 4층에 마련됐다. 신중일 기자



봉선사, 진우 스님 초청 청년수계법회 연다

美 보스턴박물관 불사리 이운해 양주 회암사서

5월 총무원장 취임 600일 기념
봉선사-회암사 17㎞ 도보순례도
3개년 사업 '명상문화센터' 건립

남양주=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가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 중인 부처님 진신사리와 지공·나옹 스님의 사리를 이운해 양주 회암사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증명으로 대규모 청년수계법회를 연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1월 15일 경내 휴월당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이어 진행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초청 부처님 사리 이운 및 수계법회'를 소개했다.

수계법회는 조계종이 내달 5일(현지시간) 반환 협상에 나서는 보스턴미술관 소장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를 중심으로 한다. 이 사리구의 반환은 벌써 15년 전부터 추진돼왔지만 보스턴미술관 측은 사리함을 제외한 사리의 반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 사리와 사리구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사리 반환은 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라 봉선사는 사리 이운과 청년수계법회를 계획했다.

행사는 5월 18~19일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600일을 맞아 진행될 예정이다. 상월결사 정신을 따라 봉선사에서 양주 회암사까지 약 17㎞를 도보로 순례한 뒤 회암사에서 본격적인 수계법회가 봉행된다. 회암사는 우리나라 3대 화상으로 꼽히는 지공·나옹·무학 스님의 수도처로, 돌려받은 사리 친견도 이곳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봉선사는 이 밖에도 올해부터 가람 중창불사에 나선다. 총 예산 약 190억원을 들여 과거 연꽃유치원 자리에 명상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3년에 걸쳐 건립되는 명상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100여 평 규모다. 또한 장례와 추모 공간인 무량수전 건립도 추진해 봉선사 재정구조 개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호산 스님은 "봉선사는 불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불자들이 찾는 사찰로 문화를 통한 포교에 전념하려 한다. 이를 위해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불사를 준비 중"이라며 "상월결사 근본도량으로서 포교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반려견 템플스테이와 천도재 등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발맞춰 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봉선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청풍루에서 우리말 금강경 독송 특별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해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는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법문을 맡았다.

주경 스님은 "만공 스님께서는 '삼도'를 갖춘 곳에서 공부하라고 하셨다. 도량, 도사, 도반이 바로 삼도다. 봉선사라는 좋은 도량에서 많은 스님, 불자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 자체가 삼도를 갖춘 것"이라며 "작은 불이 산을 태울 수 있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세상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듯이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경 스님은 금강경 가르침인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를 언급한 뒤 "그때그때 보는 것들이 상이 아닌 걸 본다면 부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숭산 스님께서도 때도 없고 장소도 없다고 하셨다"며 "금강경 독송 정진을 함께하신 여러분이 그런 안목을 길러 참된 불자로 거듭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팔순 노보살 기부에 진우 스님 격려

부산 공민주 보살, '천년을세우다' 불사에 1500만원

팔순 넘은 노보살이 최근 별세한 친오빠와 자승 대종사를 추모하며 '천년을세우다' 불사에 1500만원을 희사해 감동을 전하고 있다.

조계종 미래본부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공민주(81) 보살은 1월 9일 '천년을세우다' 불사 기금 1500만원을 입금했다. 특히 최근 고인이 된 친오빠 천도를 기원하고, 지난해 11월 입적한 자승 대종사를 추모하는 마음을 보태 3명의 이름으로 각각 500만원을 송금했다.

공 보살은 통도사를 재적사찰로 기도정진해온 신심 깊은 불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원력불사가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미래본부는 밝혔다. 소식을 들은 진우 스님은 지난 11일 직접 공 보살에게 전화해 감사와 격려인사를 전했다. 윤호섭 기자

본지, 삼론종·여래불교조계종과 MOU

'종단 공고 알림' 서비스 제공키로



현대불교신문(대표 혜도 스님)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최근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해불 스님), 여래불교조계종(총무원장 덕평 스님)과 종단 공고 알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불교신문은 협약 종단의 공고 및 소식 알림 등을 별도 지면으로 배정해 각 종단 활동을 홍보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삼론종은 1989년 창종한 종단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이사 종단 중 하나다. 종정 혜승 스님을 중심으로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비롯, 전국 150여 사찰에 스님 300여 명이 전법교화에 나서고 있다. 간행물은 종보로 〈삼론법보〉(문화관광부 등록) 등이 있으며 매년 수륙대법회, 창종기념법회, 삼론종조 승랑조사 추모다례, 중흥조 대산대종사 열반재, 종도 수련 교육, 자비나눔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여래불교조계종은 2010년 창종한 종단으로 2022년 사단법인 등록을 완료했다. 종정 성관 스님을 중심으로 총무원장 덕평 스님, 사단법인 이사장 법오 스님을 비롯, 전국 20여 사찰에 스님 30여 명이 전법에 힘쓰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전생 이야기 영어로 표현해요"

국제포교사회, 제15회 자타카 영어말하기대회

전국 각지서 20명 본선 대결
포교원장상에 이채린·이정원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하는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가 전국 어린이들의 열띤 동참 속에 성료했다.

국제포교사회(회장 정혜 스님)는 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5회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최종 결승대회로, 20명의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랐다. 국제포교사회는 앞서 지난 1월 7일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대회를 실시한 바 있다. 지역대회에서는 117명 어린이들이 참가,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자타카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무수한 전생 동안 수행과 공덕을 쌓는 과정을 담은 경전이다. 자비와 효, 인내 등 다양한 가르침이 담긴 547가지 전생 이야기가 동화처럼 전개, 부처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본격적인 대회 시작에 앞서 회장 정혜 스님은 자타카에 대해 설명하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을 익혀 자신을 변화시키고 부처님의 거룩한 법을 전세계에 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참가자들은 '황금접시' '나쁜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명상하는 경비원' '선반나무' '메추라기 왕과 사냥꾼' 등 다양한 주제의 부처님 전생담을 영어로 전달하며 기량을 뽐냈다. 이야기에 맞춰 준비한 다양한 소품과 의상, 분장 등으로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서 예선을 거친 어린이 20명이 무대에 올라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조계종 포교원장상은 이채린, 이정원 학생에게 돌아갔다. 국제포교사회 회장상은 오연아, 김아영 학생이 수상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우수상이 수여됐다.

6명의 심사위원을 대표해 심사위원장 김진성 포교사는 심사평을 전하고 "이야기를 이해하고 잘 전달하는가를 중점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참가 어린이 모두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치하하며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가 매년 발전, 종단의 중요행사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이관섭 대통령실불자회장 취임

1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취임법회

불교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 등
교계·정관계 주요인사 다수 동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2대 대통령실불자회장에 취임했다.〈사진〉 대통령실불자회는 1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대 대통령실불자회 이관섭 회장의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불교계와 대통령실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과 함께 부처님전에 헌등하며 새 대통령실불자회장으로 각오를 다진 이관섭 회장은 지난해 11월 입적한 자승 대종사를 추모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불교 전법의 새 지평을 여셨던 해봉당 자승 큰스님을 보내드렸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스님들께서는 자승 대종사님의 큰 뜻을 이어가기 위해 흔들림 없이 마음을 모아주셨다. 진우 스님을 중심으로 굳게 단합하는 불교계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 회장은 이어 "불교계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회적 현안 해결을 모색한다면, 위기는 우리에게 더 나은 기회와 또 다른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불자회는 앞으로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윤석열 정부의 불교 공약 이행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대통령실불자회장을 맡은 이 회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분연히 나섰던 호국불교의 전통은 오늘 이 자리에도 이어진다"며 "한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정진하고 그 공덕을 국민에게 회향할 때 정토 세상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불자회와 참석대중은 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으며 국태민안, 국민행복이라는 목표를 다시 되새겨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나라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원했다. 윤호섭 기자

천태종, 대충 대종사 탄신 98주년 기념

1월15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법회 봉행



천태종 2대 종정을 지내며 종단의 중흥을 이끈 대충 대종사의 탄신 98주년을 기념해 대종사의 원력과 종단 발전의 업적을 기리는 법석이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월 15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 탄신 98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요식에서 도용 종정예하와 원로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덕스님과 내빈은 헌향·헌화를 하며 대충 대종사의 정신과 사상을 기렸다. 헌향·헌화가 진행되는 동안 화산 스님과 책임부전 진철 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범음범패보존회 스님들의 상단권공 및 조사영반 의식이 진행됐다.

의식 후 총무원장 덕수 스님〈사진〉은 봉축사에서 "오늘은 천태종단의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님 탄신 98주년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이라며 "대종사님은 대자대비로 고통 받는 중생들을 한결같이 보살피시어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애주시고 제도해주셨다. 대종사님을 친견하신 불자라면 대종사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덕수 스님은 또 "이제는 천태종도로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가 됐다. 받기만 하는 불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보살이 돼야 한다. 또 세월만 보낸 불자가 되지 말고, 보살심을 발심해 실천하는 천태불자가 되자"면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모든 사부대중이 불보살님의 가호로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가정이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축사도 이어졌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대종사님은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법통을 계승해 무한 자비심을 펼치셨다"면서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천태종단 발전이 단양군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종단 포커스

일붕선교종, 1월 9일 신년하례법회 봉행



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1월 9일 총본산 일붕선원에서 '불기 2568년 갑진년 신년하례법회 및 시무식'을 봉행했다.〈사진〉

신년하례법회는 총무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의장 도정 스님의 헌향과 헌화에 이어 신년하례, 호계원장 동청 스님의 상축, 총무원장 혜일 스님의 신년사, 종회의장 도정 스님의 신년인사, 사홍서원 및 신년 떡케이크 커팅식 등으로 이어졌다.

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생명들이 부처 성품을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잘 익혀서 지혜를 증득하자. 모든 불자들이 마음속 등불을 환히 밝히고 성불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삼론종, 1월 15일 신년하례법회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해불 스님)은 1월 15일 포천 보문정사에서 불기2568년 갑진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종정 혜승 스님은 "욕행천리(欲行千里) 초보위귀(初步爲貴) 일념초심(一念初心) 성등정각(成等正覺) (천리길을 가고자 할진대 첫 걸음이 가장 중요하듯 일념이 시작하는 마음이 등정각을 이루어 내리라)"는 게를 전하며 "각자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해불 스님은 "올해 8월 수련대회는 종단 정체성을 찾는 중국 서하사 성지순례 일정으로 대체하겠다. 법계고시 시행도 추진할 것"이라며 종단 발전과 종도 화합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여래불교조계종, 1월 17일 시무식 개최



여래불교조계종(총무원장 덕평 스님)은 1월 17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총무원 사무국에서 갑진년 종단 시무식을 개최했다.〈사진〉

종정 성관 스님, 총무원장 덕평 스님, 이사장 법오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이 참석했다.

종정 성관 스님은 이날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화합과 소통이 중요하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마음을 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길에 나서자"며 "새해 종단이 준비 중인 자비은행을 통해 적극적인 자비실천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병원서도 웃는 보현이가 1등 포교사”

그대는 자비보살 심장판막증 보현이의 수호신장 **묘담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요리교실을 체험한 7살 보현이. 활짝 핀 꽃처럼 환한 미소로 진우 스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보현이는 ‘미운 7살’이라는 비유를 무색하게 했다. 선천성 심장판막증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수술을 받고도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 이런 보현이의 ‘엄마’는 서울 미아동 수안사 주지 묘담 스님이다. 정확하게는 보현이의 법적보호자. “보현이는 생후 한 달째부터 수안사에서 살고 있다”는 묘담 스님의 짧은 설명에 그 인연을 듣고자 1월 10일 수안사를 찾았다.

보물이자 선물인 보현이

보현이의 생모는 묘담 스님도 일면식이 없는 재소자다. 교도소 수감 중에 아이를 낳았고, 생모가 미혼모였다는 사실도 친권이양을 위한 재판 도중에 알게 됐다. 생모가 불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친인척이 묘담 스님에게 태어날 아이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아이는 ‘보현보살’의 이름을 갖고 수안사 가족이 됐다.

하지만 보현이는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했다. 출산예정일을 한참 지나 세상에 나오면서 엄마 품보다 중환자실에서 먼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선천성 장애의 원인을 찾을 수도, 찾을 이유도 없지만 보현이는 아픈 곳이 너무 많았다. 손발부터 뇌, 장기, 구강까지 성한 곳이 없는 데다 신부전증도 앓았다. 그럼에도 묘담 스님에겐 보현이가 ‘보물’이다.

“저는 보현이의 겉모습에서 장애가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이를 배려해서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물론 남들은 제 말을 이해 못하죠. 보현이는 부처님이 전해주신 선물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곁에 왔어요.”

보현이 얘기를 이어가던 묘담 스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아픈 아이가 겪었을 고된 시간 때문이 아닌 선물처럼 인연을 맺게 된 감사함에서 차오른 눈물이다. 1981년 21살의 나이로 불문에 들어선 묘담 스님도 이런 인연은 예상하지 못했을 터. 스님에게 “출가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다”고 말을 건네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보현이는 넷째예요.”

묘담 스님은 출가하고 1980년대 미아동 산골짜기 판잣집 법당 시절의 수안사에서부터 은사인 근성 스님과 업둥이들을 키웠다. 20대 초반의 묘담 스님은 국민학교에 다니던 첫째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첫째는 장성해 가정을 이뤄 벌써 쉰이 넘었다. 불혹을 넘긴 둘째는 진즉에 출가했고, 30대인 셋째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 뒤로 오랜 세월이 지나 보현이가 온 것이다.

오래전부터 묘하게도 묘담 스님이 가는 곳엔 동네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옛날 ‘방구차’ 쫓아 달리던 것처럼 아이들이 몰려왔다. 어디 아이들뿐인가. 주인 없는 개와 길고양이들도 스님 곁을 맴돌았다. 그렇기에 출가수행자로서 누군가의 엄마가 되리라고 다짐한 적은 없지만 엄마가 됐다고 해서 놀랄 일도 아니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스님에겐 양육이 순리였다.

아빠보살 엄마보살 그리고 약왕보살

묘담 스님은 보현이를 ‘영성이 아주 깊은 아이’라고 표현했다. 영락없는 꼬마인데도 마당에 핀 꽃을 두 손으로 받쳐 눈을 감고 이마를 갖다 대며 느끼는 보현이다. 건강이 좋지 못하고 ‘엄마’라는 말밖에 하지 못해 학교 대신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도 다른 동생들을 말없이 폭 안아주기도 한다고. 병원에서 주사바늘을 놓을 때도 우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은 보현이였다.

양육 여력 없는 생모 친권포기
묘담 스님이 법적보호자 맡아
생후 한 달째부터 수안사 살아

선천성 장애로 수술만 수차례
힘든 상황에도 미소 잃지 않아
“보현이 존재가 곧 부처님 선물”

보현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숨은 조력자들이 많다. 가장 가깝게는 보현이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한 중년부부. 묘담 스님에겐 ‘아빠보살’ ‘엄마보살’로 통한다.

“보현이 양육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도와주시는 아빠보살, 엄마보살님이 계시거든요.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많은 걸 도와주시는데 그 덕에 보현이도 긍정적으로 자란 것 같습니다. 보현이가 아빠보살님을 너무 좋아해요.”

보현이가 수술을 받는 서울대병원에선 의료진 모두가 약왕보살이다.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의 수안사와 보현이의 상황을 전해들은 서울대병원이 보현이를 33번째 무료환자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한 달이 넘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담당 의료진이 서류 작성까지 도와주며 이룬 성과다.

이 때문일까. 보현이는 병원에서 누구나 반기는 ‘슈퍼스타’가 됐다. 항상 웃는 얼굴로 의료진을 만나 분위기를 띄우니 당연한 결과. 게다가 가르치지도 않은 합장을 언제 보고 배웠는지, 매번 합장으로 인사하는 보현이의 모습에 이제는 의료진도 합장으로 화답한다. 보현이 수술에만 병원 16개 진료과가 연결돼 있으니 보현이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1등 포교사나 다름없다. 묘담 스님은 병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매주 취약계층을 위해 만드는 ‘자비애빵’을 의료진에게도 나눠주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과 혜택을 쏟아주신 거죠. 그걸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불행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

묘담 스님은 누군가 보현이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면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했다. 다리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해 보현이 다리가 처진다고 말한 사람에겐 “보현이가 전생에 수행한다고 가부좌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못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에겐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저 자신은 정상인양,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비정상인양 평가하는 사람들이 안쓰러웠다. 자신이 더 잘난 것 같이 말하면서도 정작 이것저것 불평하며 스스로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었다.

“팔다리는 멀쩡하면서도 인간 이하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멀쩡하다면서 의기양양한 사람이 정작 제일 불행해요.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불행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 말이죠. 몸은 성치 않더라도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보현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은 후두경부암 4기 판정을 받고 2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겪은 묘담 스님이 평생 지켜온 자세다. 한순간도 놀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 은사스님을 보며 닮고자 한 노력이기도 하다. 수술을 앞두고도 ‘부처님이 드디어 푹 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다는 스님 말씀에 절로 숙연해졌다.

인터뷰 도중 보현이의 물건이 한가득인 책장에서 루돌프처럼 꾸민 보현이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어린이집에서 만든 것 같은 사진은 자그마한 보살님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보현이도 모든 어려움 다 극복하고 보현보살처럼 행원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보현이의 법적보호자인 서울 미아동 수안사 주지 묘담 스님. 스님은 노숙자와 복지시설에 빵을 만들어 후원하는 ‘대행보현회 자비애빵’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보현이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함께한 요리교실. 활짝 웃는 보현이의 미소가 아름답다.

사찰고급연등
자동승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 치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010-5340-7941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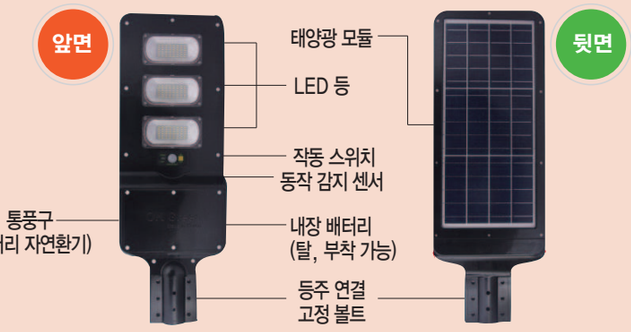
시공전 / 시공후







제품 세부 소개



자동 승 하강장치 설명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의 장점

1. 발원 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 보입니다.
3. 법당 내 구조와 면적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이며 사후관리도 책임집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 시공시 많이 하는 질문

시공사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전성입니다. 시공전 현장 방문하여 현장 수치에 맞는 도면 작업 후 연등 개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현장에 맞는 수치를 계산하여 계산치의 최대 용량에 60%를 넘지 않도록 튼튼하게 시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파동식 가로등

어둠을 밝히는 자비광명 가로등은 경내외에 전기공급 없이 자체 발전으로 켜지는 가로등입니다. 자비광명 가로등으로 경내외에 큰 공덕의 자비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가로등불빛아래 풍경을 달아 불사에 동참하신분들의 성함을 넣어서 달아드리니 오랫동안 기도와 소원을 이루리라 사료됩니다.
귀 사찰에 귀감이 되는 불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직교사들 마음 어루만진 템플스테이

부산 한마음선원 콘텐츠 기획
1월 9~10일 상담·촛불재 등
"우리 모두 내면의 힘 있어"

이도경 부산지사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교사들이 사경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

교육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길 서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은 1월 9일부터 1박 2일간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우리들의 지혜가 세상을 밝혀주길'이란 주제로 마련된 템플스테이는 교권 추락이라는 상황에 직면한 교사들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나를 고집하지 않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는 취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첫날 "여러분은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다. 한분 한분은 수천, 수만 학생들의 인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밝은 눈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강한 내면의 힘이 있어야 한다"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 원래 지혜롭고 어려운 상황도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행사는 △입재식 △윤회담 △스님과의 차담 △촛불재 △새벽예불 △내면의 뜻을 따라서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윤회담'에서는 처음 만나는 참가자들끼리 잠자기 전에 뭘 하는지, 음식 먹기 전에 어떤 마음을 내는지 등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다른 사람과 자신의 속마음을 공유했다. '스님과의 차담' 시간에는 참가자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을 말하고 스님은 조언을 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 힘들어했으며 스님은 "인간관계는 마음과 마음의 관계이니 우선 자신의 마음부터 잘 관찰해보라"고 조언했다.

이후 촛불을 켜 지혜 재생처인 자신의 근본자리를 지켜보는 촛불재가 이어졌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촛불재를 통해 참가자들은 마음을 치유하고 근본자리에 대한 믿음, 지혜를 밝힐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내면의 뜻을 따라서'는 정해진 프로그램 없이 내면의 뜻에 따라 실천해보는 시간이었다. 어떠한 어두운 마음도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지혜롭게 재생되어 나올 수 있다는 뜻을 담아 염주를 한 알 한 알 직접 꿰기도 했으며, 대행 스님의 법문을 사경하며 자신이 지혜의 재생처임을 한 번 더 다짐하기도 했다.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혜벽 스님은 "1박 2일의 일정동안 선생님들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들의 지혜가 세상을 비춰주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매년 방학기간을 맞아 교사를 대상으로 여름에는 교사 직무연수, 겨울에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 한마음선원, 지역청소년 장학금 지원

천곡중 · 호계고 각 300만원
대학생 1명은 전액 장학금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이 임복룡 천곡중 교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이 천곡중학교와 호계고등학교 학생 등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1월 14일 대법당에서 정기법회 및 한마음선원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울산지원과 천곡중, 호계고와 체결된 장학금 지원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천주현 신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달식에서 천곡중 3학년 오유진 학생 등 10명에게 30만원씩 총 300만원이 수여됐다. 장학금은 임복룡 교감이 대표로 수령했다. 천곡중은 내신 석차 연명부기준 졸업성적 상위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호계고에 대한 장학금 300만원도 전득희 교감이 대신 수령했다. 호계고는 학교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경북대 김일여 학생에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일여 학생의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이다.

지원장 혜안 스님은 "천곡중과 호계고는 한마음선원 울산지원과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었다"며 "대행 큰스님께서 소아암 어린이 돕기 행사를 할 때 지역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라는 말씀이 있어 MOU를 맺고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어려운 형편의 학생을 선발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십시일반 마음을 내주셔서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김일여 학생은 "감사함을 마음에 품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임복룡 천곡중 교감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배려아래 학생들이 훌륭한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지원장 혜안 스님, 총무국장 혜자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천주현 신도회장, 이명희 합창단장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인류 평화에 힘 쏟는 불자 거듭나자"

통영사암연합회 1월 14일
성도절 봉축대법회 봉행



통영불교사암연합회가 성도절 봉축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1월 14일 마리나리조트 스포츠센터 2층 특별법당에서 열린 법회는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묵원 스님, 창녕 관룡사 주지 정안 스님,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 연화사 혜월 스님, 보광사 연산 스님, 대성암 범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정점식 국회의원, 조형호 통영부시장,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저희 불자들은 신명을 다할 때까지 밝은 자비의 광명과 진리의 등불 아래 영원히 물러남이 없는 부처님의 전법 제자로서 법륜을 굴리기를 서원한다"며 "화합 대중이 더욱 단결하여 국가와 인류 평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자비를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에 가득 채워 주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묵원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신심 나는 불교, 재미있는 불교, 나누는 불교를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성도절 연합법회가 그중 하나인 신심 나는 불교"라며 "부처님의 성도를 봉축하는 법회를 통해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성불의 감동을 느끼려 한다"고 말했다.

관룡사 정안 스님은 법어에서 "화엄경 첫 구절에는 모든 중생이 다 깨달아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단지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제대로 발현하지 못할 따름이라서 안타깝다는 부처님의 한탄이 담겨있다"며 "집착과 망상을 던져버리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신심과 견고한 불퇴전의 마음가짐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종교는 중생의 이익과 편안,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강조했다.

참석 대중은 금강경 독송과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법회를 마쳤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바른 생각·바른 행동으로 살라"

금산사 성도재일 법회 봉행
조실 도영 스님 법문서 강조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 스님)가 불기 2568년 성도재일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재일을 맞아 1월 18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봉행된 성도재일 법회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수현사 주지 응묵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바라밀합창단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도재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부처님전에 공양 올리는 육법공양에 이어 봉행된 법회에서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과 더불어 성도재일은 불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어 각 사암마다 철야정진을 하면서 부처님 성도의 의미를 새기고 있다"며 "올해는 특별히 금산사 조실 도영 대종사님의 법문을 통해 생활에 큰 깨우침이 있다면 더 바랄게 없다"고 말했다.

도영 스님은 성도재일 법문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성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보살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부처님의 생애 중 설산수도상과 초전법륜상을 설명하고 "불교는 바른 생활을 실천하는 종교"라면서 "항상 바른 생각과 그 생각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불교회관 바라밀합창단은 찬불가를 합창하며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성도절을 축하했다.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도의 눈을 뜨시고 대각의 도를 성취하신 성도절을 맞아 깨달음의 안목과 자비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자 한다"면서 "탐욕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더불어 살 줄 아는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새 회장 소운 스님 취임

성도재일 기념법회 겸해



광주불교연합회는 1월 17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성도재일을 맞아 기념법회와 제7대 신임회장 소운 스님〈사진〉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소운 스님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회장 소임은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맡은 일이다. 제가 할 일은 부처님전에 매일 기도정진하고 사부대중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광주불교의 도약을 위해 불교회관 건립 대작불사를 원만히 이뤄내는 것이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운 스님은 이어 "광주불교가 화합된 모습으로 크게 도약하는 길을 모색하고, 수행정진하는 신행풍토를 조성해 포교전법의 길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취임사에 앞서 수석부회장 월인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가정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불교회관이 앞으로 많은 자비보살행을 실천하는 부처님의 공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진, 또 정진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축사했다.

김대원 신도회장도 "광주불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신 부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소임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을 빛낸 불자 시상식에선 이금지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 광주지회장이 빛고을불자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조계종 광주승보회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남 대흥사에서 봉행된 포교사단 광주지역단장 이취임식.

광주 포교사단 단장 이취임

장경덕 신임단장 "포교 매진"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은 1월 13일 해남 대흥사 보현전에서 '불기 2568년 포교전진대회 및 지역단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장경덕 신임단장은 "포교사 배가운동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세계평화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 모두 포교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중앙종회의원 설도·향문 스님 등 120여 명이 참여해 단장 취임을 축하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불교를 알리는 우리 모습이 곧 한국불교의 모습이니 지역에서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도 축사를 통해 "불법을 믿는 여러분들이 계율을 지키고 육바라밀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의 지도법사인 연성 스님(송광사 포교국장)도 "원력을 세우고 열심히 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남을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은 욕심이니 타인을 생각하며 포교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취임식에서는 지난 1년간 우수한 활동을 한 포교사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포교원 표창 박정현, 총재상 박태백, 포교원장상 김영은·나채순 포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절에서 배우는 구강건강 관리법

마하사, 구강건강 교육 실시



부산 마하사(주지 정산 스님)가 신도들의 구강 건강을 돕기 위해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마하사는 1월 12일 경내에서 치과위생사를 초청해 구강 건강을 위한 치아 관리 교육을 제공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치료 받은 치아의 수명을 길게 하고, 치주병 및 흡인성 폐렴을 예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획됐다. 교육에는 정민숙 구강건강교육 전문 치과위생사와 '부산시 프리랜서 구강건강교육자 치과위생사 모임' 소속 23명의 치과위생사가 함께했다.

교육내용은 △구강기능을 향상시키는 입근육마사지 △치면세균막 제거 방법 등 구강위생관리 △흡인성 폐렴예방과 구강건조증 완화를 위한 입체조 △올바른 씹기 방법과 삼킴을 주제로 했다. 이어 치과위생사 봉사자들은 신도들을 위해 직접 입근육마사지와 구강청소를 실시하며 올바른 관리방법을 조언했다.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은 "건강한 치아는 오복(五福) 중 하나일 정도로 소중하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부실해져 몸 전체의 건강까지도 나빠질 수 있다"며 "음식 잘 씹어 삼키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제부터 신도님들은 부처님 말씀 잘 씹어 삼켜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우리 가족 갈등 해결의 열쇠, 화쟁!

조계종 화쟁위원회

2023 갈등해결 성공사례 수기

① 화쟁위원장상 정○○ 씨

중학생 딸과 아내 '소통 부재'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중학생 화장' 두고 견해 차이
템플스테이서 스님에게 들은
원효대사 '화쟁 사상' 떠올라

다툼 없어야 한다는 접근 아닌
평화롭게 해결해나가자는 이념
허심탄회하게 서로 생각 공유해
다시 화목한 가정 되찾은 계기

'소통의 부재(不在)'는 '갈등'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마음속에서 오해와 미움이 잡풀처럼 자라나 갈등을 불러오고, 종국에는 관계를 단절시키고야 만다.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를 보면 잘 다녀왔느냐는 말 대신, 인상을 찌푸린 채 한숨부터 내쉬곤 했다. 아직 중학생인 딸아이가 성인처럼 짙게 화장을 한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래서 늘 외모를 꾸밀 시간에 학업에나 집중하라며 꾸짖어댔다.

딸아이는 아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행동했다. 아내가 무엇을 물어보아도 늘 무뚝뚝한 말투와 표정으로 짧게 한마디만 툭 내뱉을 뿐이었다. 특히 조금이라도 감정을 상하게 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며 큰소리를 지르곤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둘의 관계가 원래부터 소원했던 건 아니었다. 딸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함께 쇼핑을 하고 영화관과 서점에도 다닐 만큼 사이가 좋았다. 그런데 딸아이가 중학생이 된 후부터 사이가 서먹해졌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것에 집중하며 겉돌 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둘 사이에 감정 섞인 논쟁만 오갈 뿐 대화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논쟁을 논쟁으로만 끝내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잘되지 않으니 쉽게 오해가 쌓이고, 풀지 못한 오해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반복된 갈등이 결국 불통과 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몸도 어딘가 막힌 곳이 있으면 병이 나듯이, 소통이 되지 않으니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가장으로서 아내와 딸아이의 갈등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의 갈등을 풀어줄 방법을 고심하다가 문득 템플스테이를 했을 때 주지스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화쟁(和諍)이 떠올랐다.

신라시대 승려인 원효대사가 집대성한 화쟁사상은 단순한 불교의 교리를 넘어서서 다양성 속에서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관용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화쟁은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이념인 것이다.

나는 쉽게 풀어지지 않는 이 갈등을 원효대사의 화쟁으로 풀어보고자 했다. 가족 갈등이 생기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화쟁에 따르면 이 갈등을 역으로 잘 활용하면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화목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억지로 갈등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며, 갈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림·김상규

나는 아내와 딸아이의 마음속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화쟁을 시작했다.

일단 아내와 먼저 대화를 나눴다. 아내는 잠시 주저하더니, 곧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았다. 오매불망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차갑게 쏘아붙이는 모습을 볼 때면 절로 화가 나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며 복잡한 감정을 내비쳤다.

나는 원효대사가 말씀하셨다는 개시개비(皆是皆非)가 떠올랐다.

"예전에 우리 가족이 템플스테이 했을 때 주지스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한번 잘 떠올려봐. 누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현명한 거잖아. 우리 애도 당신이 자꾸 화를 내니까 방어기제가 작용해서 더 반항하며 싸늘하게 구는 건 아닐까? 당신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 같아?"

"애가 너무 외모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학업에 좀 더 열중했으면 좋겠고, 나한테도 너무 차갑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내의 속마음을 들은 나는 이번엔 딸아이를 찾아가 얘기를 나눠보았다. 딸 역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아빠, 요즘은 중학생도 다 화장하고 다녀. 나만 안 하면 친구들이 촌스럽다고 무리에 끼워주지도 않아.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나를 외모만 신경 쓰고 공부는 등한시하는 한심한 학생으로 봐. 내 말은 듣지도 않고 한숨부터 내쉬는 엄마를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나 행동이 차갑게 나와!"라고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도 얘기했던 개시개비를 딸에게 설명하며 "엄마와 네 생각이 다를 땐 화부터 내지 말고 먼저 엄마한테 다가가서 답답한 부분을 말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조언했다.

이후 나는 두 사람에게 서로의 생각을 전달한 후 거실로 모이게 했다. 그간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각자의 주장만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 보자는 의미였다.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결국 서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그간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단 상대에 대한 섭섭함만 키워왔다는 것에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난 네가 너무 외모에만 신경 쓴다고 생각해서 답답한 마음에 화를 낸 거야. 앞으로는 엄마한테 와서 네 생각들을 차근차근 얘기해줘. 나도 최대한 네 이야기를 경청할게."

"엄마, 인생 선배로서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건 알아. 그런데 무조건 이건 안 돼! 저건 나빠! 라고 하기 보단,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먼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아내와 딸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수긍했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긴 시간 냉기류가 흘렀던 모녀는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손을 맞잡은 채 서로에게 사과했다. 대화를 통해 서운했던 감정을 풀고 나니, 정작 갈등의 내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저 서로 감정이 격해져 갈등의 내용까지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뿐이었다.

그 후 아내와 딸아이는 사이가 돈독했던 이전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내는 화장을 한 딸아이를 보고도 한숨을 내쉬지 않고 "딸, 오늘 학교에서는 어땠어? 요즘에는 엄마보다 화장을 더 잘하네"라고 말을 걸어주었고, 딸아이도 아내와 눈을 맞추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스스럼없이 꺼내놓았다.

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내가 무턱대고 나서기보다는, 아내와 딸이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제시한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주효했던 것 같다.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통해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한 일상을 회복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함이 밀려왔다.

가족.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에 얼마든지 심각한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갈등을 방치하면 관계가 파괴되고 종국에는 자신의 삶까지 피폐해지고 만다. 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할 때 가족은 지금보다 더 나은 화합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모든 가정에서 화쟁을 통해 갈등을 조화시켜 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화쟁위원회가 공모한 수기는 개인적인 갈등 상황이 담겨있어 익명으로 게재합니다.

2024년 아랫녘수륙재보존회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스님 및 불자, 작법무(불교무용)에 관심있는 일반인
모집기간 2024년 1~2월, 3월 첫째주 월요일 개강
교육장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38 도지정무형문화재 민속예술전수관 3층
연 락 처 055)246-3374, 010-3852-1760

교육과정

교육일시	강사	강좌내용
매월 첫째 · 셋째주 월요일 (14:30~ 16:30)	석봉스님 지공스님	짓소리, 홑소리, 제반의식, 안채비, 바깥채비
매주 화요일 (14:30~ 16:30)	보광화 수연화	작법무(학승무) 운심게, 다게, 삼귀의, 오공양, 요잡
매월 첫째 · 셋째주 (14:30~ 16:30)	현덕스님 원공스님	사물, 의식일부
매주 금요일 (14:30~ 16:30)	석봉스님 해공스님	작법무(바라무) 천수바라, 사다라니, 요잡바라, 명바라, 화이재, 욕실게바라

※ 특전 : 3년 교육과정 이수시 아랫녘수륙재 이사회 심사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시험 자격부여
사)국가무형문화재 아랫녘수륙재보존회 정식회원 인정가능.

사)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녘수륙재보존회

40년 전통의 불교전문교육기관
동방불교대학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불교교리·기초의식
범패학과	00명	2년제	상용의식·상주권공

지원기간 2023. 12. 01 (금) ~ 2024. 02. 08 (목)

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동방불교대학 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학생광장 > 공지사항 > 2024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참조
접수 방법 : e-mail, Fax, 우편접수 가능

입학상담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02-745-2030 (010-3089-9983)

주소 : 우)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e-mail : dongbang2030@naver.com Fax: 02-745-2030

日, 닥종이로 염분 노출 마애불 보존처리

오랜 기간 흡수된 염분 처리위해
일본 전통종이 '화지' 활용 진행
'탈염처리법' 발견 해외서도 관심
"염류 대책은 보존 정비 첫걸음"

박영빈 객원기자


닥종이를 이용해 마애불을 훼손하는 염분을 제거한다. 사진출처=오이타 합동신문

일본 오이타(大分)시 소재 고대 마애불을 일본 전통 닥종이를 활용해 보존처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월 12일, 일본의 '오이타 합동신문'은 석불의 열화를 가속시키는 염분을 제거하기 위한 독자적이고 독특한 보존처리에 대해 보도했다.

'오이타 모토마치 석불'은 오이타시의 시가지에 가까운 모토마치(元町) 지구의 우에노다이지(上野丘台地) 언덕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헤이안 시대 후기인 11세기 중반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본존은 높이 3.84m의 약사여래불로 좌우에는 부동명왕 삼존상과 비사문천상이 조성되어 있다. 현지에서는 '바위 약사불'이란 애칭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지역 신행활동의 중심지로 모셔져왔다. 뛰어난 작품성과 역사성으로 1924년 일본의 사적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노천에 노출된 결과 현재 본존상의 양팔과 복부 등이 크게 탈락되었고, 최근 어깨와 무릎에 박락과 열화가 관측됐다. 오이타시 문화재과 측은 "마애불 아래로 흐르는 지하수에 포함된 염분이 열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염분이 바위를 타고 올라와 지표에서 결정화되면서 마애불을 내부에서부터 부식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1971년에 보존정비를 실시, 1986~1995년에는 배수관 등을 마련해 마애불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를 차단했다. 문화재과 측은 "지하수를 차단했음에도 오랫동안 흡수된 염분이 계속 불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최근 조사결과를 전했다.

최근 이 마애불에 대한 보존처리에 오이타시 문화재과는 독자적인 처리법을 개발하여 진행 중이다. 일본의 전통 닥종이인 화지를 불상에 직접 붙여 염분을 흡수시키는 것이다. 문화재과는 지난 2014년 손상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붙인 닥종이에 염분결정이 맺힌 것을 발견, 나라문화재연구소의 연구자들의 조사결과 실제 화지에 탈염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화지를 이용한 석조문화재의 탈염처리법의 발견에 해외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와 독일 등 염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심한 국가의 연구진들이 모토마치 마애불을 방문해 탈염처리법을 비롯한 보존처리법을 배워갔다. 한편 문화재과 측은 처리를 실시하는 간격을 검토 중이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본래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빈번한 화지의 교체는 석불을 손상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연 1회, 2개월 정도 화지를 붙여 왔지만, 21~22년은 휴식, 지난해 10월 3년 만에 재개했다. 향후 적절한 간격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나라문화재연구소와 교토대 공학연구과는 합동 조사와 실험을 실시, 마애불 옆에 마애불과 같은 응회암으로 만든 직육면체를 설치해 연 단위로 수분량과 온도 등의 데이터를 계측해 보다 효율적으로 탈염할 수 있는 처리법의 개발 실험에 나섰다. 오이타시 문화재과 고노시로 참사보는 "염류 대책은 향후의 보존 정비의 첫걸음"이라면서 "보다 좋은 방법을 찾고 싶다"며 향후 마애불의 보존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자연과 하나 되는 명상 공간 조성

끼리롬 국립공원 내 조성 예정
38만평 규모…불교 연구 구역도


끼리롬 국립공원 삼매 성역 사업부지 전경. 사진출처=더 네이션 타일랜드

캄보디아 환경부가 국내외 불자들의 명상 수련과 전법 활성화를 위해 끼리롬 국립공원 내 삼매 성역 조성에 나섰다. 지난 1월 8일 '더 네이션 타일랜드'는 캄보디아 국립공원 내 삼매 성역 조성 소식을 전했다.

프놈펜에서 112㎞ 떨어진 캄퐁스페우 지역에 위치한 끼리롬 국립공원은 캄보디아 첫 국립공원으로 '행복한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 캄보디아 2023~28 환경순환 전략사업 중 하나인 캄보디아 불교문화 홍보 및 천연자원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캄보디아의 천혜 자연 속 삼매 성역 부지는 126만㎡(약 38만여 평) 규모로 조성된다. 끼리롬 국립공원 삼매 성역은 명상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불교 연구 및 전법도량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캄보디아 앙 소팔레스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사업부지 현장 시찰을 마쳤다"면서 "캄보디아의 천혜자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으로 이끌 삼매 성역 조성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식 크메르 천막을 활용해 캄보디아의 전통과 자연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것"이라면서 "지역사회의 환경적 책임을 다해 수익의 일정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왕립과학원의 분탕 연구원은 끼리롬 국립공원 삼매 성역 조성을 적극 지지했다. 그는 "숲에서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기 인식을 촉진할 교육과 명상 전문가들의 고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고도화 된 물질문명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매 성역이 현대인의 마음 정화와 치유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과 사회가 성장하여 명상과 불교의 실천을 촉진하는 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2천년 전 불탑유적 새롭게 발견

서기 1~2세기경 건립 추정
동남아시아 문화교류 확인


팔루르 항구유적에서 발견된 불탑유적. 사진출처=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2000년 전 불탑유적지가 새롭게 발견됐다. 현재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유적은 서기 1세기에서 2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팔루르(Palur) 불탑 유적지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오디샤주 간잠(Ganjam)지구에 소재한 팔루르(Palur) 항구유적군 발굴 작업 중에 새로 불탑유적이 발견됐다. 이번 발굴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진행돼왔다. 팔루르 항구유적은 고대 벵골 만에 위치하였던 국제 무역항으로 기원전 2세기 그리스의 지리서에도 언급되는 지역이다.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디샤 해양 및 동남아시아 연구소 측은 "이번 발굴 작업은 고대 팔루르항을 통한 동남아시아 문화교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이번 불탑유적의 발견은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발굴책임자이자 연구소 수석고고학자인 수닐 파트나익 박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탑은 높이 12m, 너비 3m의 직사각형 기단 위에 서 있다"면서 "현재 추정으로 탑신부는 최고 5.5m까지 솟아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팔루르 유적의 언덕 정상에 건립됐던 사리탑의 연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기 1세기 또는 2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탑 외에도 여러 유물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보석구슬, 동전, 반지, 테라코타 조각상과 같은 생활유물들이 대거 출토됐으며, 다양한 색의 유약을 쓴 도기조각도 발견됐다. 파트나익 박사는 "불탑 근처에서 다양한 유물이 발견된 것은 이곳이 국제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던 곳임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불탑의 정확한 연대측정을 시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모니카 L. 스미스 교수는 "팔루르는 기원전 4~3세기에 중요한 국제 항구 시설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국제적인 무역 접촉의 증거가 바로 언덕 위에 불탑이 건립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발굴팀은 불탑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앞서 주변에 다른 불탑이나 사원 등의 유적이 없는지 조사 중이다. 새로운 불탑이 발견됨에 따라 조영과 관련된 추가 유물 등의 출토 여부에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KFC, '마음 평온해지는 한 잔 커피'

중국 불교 성지 우타이산과 협업

미국 패스트푸드 글로벌 체인 KFC는 최근 새로운 커피를 출시하기 위해 중국 불교 성지인 우타이산과 제휴를 맺었다. 1월 10일 '다오 인사이트'는 미 패스트푸드 글로벌 체인 'KFC'와 중국 문수보살 성지 '우타이산(五臺山)'의 협업 커피 출시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부터 사찰여행이 중국 MZ세대 중심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이들을 두고 '불교계 청년(佛系青年)'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이에 많은 사찰에서 MZ세대 포교 방식으로 '절카페' 운영에 나섰다. 항저우 용복사(永福寺)는 사찰로는 최초로 츠배커피(慈杯咖啡)라는 카페를 오픈했다.

신년 제품 출시 및 MZ세대 잡기에 나선 KFC는 불교 성지 우타이산과 협력해 향미가 우수한 아라비카 원두와 진한 우유를 넣은 '샌달우드 라떼'를 출시했다. 샌달우드 라떼는 젊은이들에게 '절향' '절냄새'로 대표되는 샌달우드(백단)향이 특징이다. 그리고 커피를 제공하는 컵에는 우타이산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과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 속 황제의 축언(顺遂无虞, 皆得所愿: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풀리고 소원 성취하길 바란다)을 담았다. 김민재 객원기자


KFC · 우타이산 샌달우드 커피 홍보 포스터. 사진출처=KFC

한국전통 자연치유 대체요법

뇌와 장을 살리는 힐링마사지

암, 당뇨, 고혈압, 치매, 우울증 등을 자연치유 하는 쾌뇌장 힐링요법

관리프로그램

쾌장경락마사지 (8만원)

기공치유
성인병관리
심리치유
오장육부 기능회복 (간, 심장, 비장, 폐, 위, 신장)
복부비만 등 복부관리
목, 어깨, 골반, 다리 등 각종 통증관리
스트레스 만성피로
각종 뇌질환(우울증 등) 관리
노화 예방, 장수 회춘 관리
영적치유 만트라명상



약손월드힐링센터 화성지부(향남) 010-7302-5620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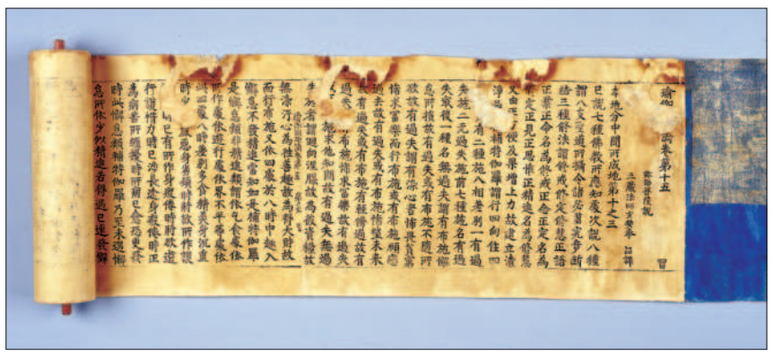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기증된 국보 '초조본 유가사지론' 만난다

국립중앙博 기증관 새 단장해
윤동한 기증 '수월관음도' 공개
기증 주제 전시공간 처음 선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 송성문 기증.

문화유산 나눔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증관이 새롭게 단장했다. 새 단장을 마친 기증관에서는 불교 경전과 불화를 만나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1월 12일부터 새 단장한 상설 전시공간인 기증관을 대중에 전면 공개했다. 이번에 문을 연 기증관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이루어진 기증관 개편 사업의 결과물이다.

이번 전시 개편은 모든 세대의 관람객이 문화유산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기증된 문화유산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했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송성문 기증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15〉(국보)를 비롯해 △이홍근 기증 〈분청사기 상감 연꽃 넝쿨무늬 병〉(보물) △이근형 기증 〈이항복필 천자문〉(보물) △국립중앙박물관회 기증 〈나전경함〉(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재개관을 기념해 손창근 기증 〈세한도〉(국보)와 윤동한 기증 〈수월관음도〉를 5월 5일까지 특별 공개한다.

개편된 기증관은 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기증 오리엔테이션 공간'과 박물관의 소장품이 된 기증품을 다양한 주제로 펼쳐 보이는 '기증 주제 전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2022년 12월에 먼저 문을 연 '기증 오리엔테이션 공간'(기증 I 실)은 '나눔'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기증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 기증의 의미를 담은 영상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수월관음도, 윤동한 기증.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기증 주제 전시 공간'(기증Ⅱ·Ⅲ·Ⅳ실)에는 기증자의 사연이 담긴 토기와 도자기에서 금속공예품, 목가구, 서화, 근현대 판화에 이르는 다종다양한 기증 문화유산을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전시실을 조성했다.

'기증Ⅱ실'은 '문화유산 지키기와 기증'이라는 주제로 20세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의 혼란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지킨 이들의 노력을 살펴본다. '기증Ⅲ실'은 '기증 문화유산의 다채로운 세계'라는 주제로 서로 다른 조형성과 미감을 지닌 문화유산을 전시실을 가로지르는 중앙 통로 좌우에 전시하여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기증Ⅳ실'은 '전통미술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이 만나는 공간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기증관 개편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박물관'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문화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했다"면서 "전시실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패널과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는 QR 코드를 설치했고, 영상 공간에는 수어 영상과 음성 자막을 함께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보물 지정된다

문화재청 1월 16일 지정 예고
17세기 건축양식 간직한 불전


보물로 지정예고된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17세기 조선시대 건축 양식을 간직한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이 보물로 승격·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인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서산 문수사는 문수사 금동여래좌상의 복장유물을 통해 사찰의 창건 시기가 1346년(고려 충목왕 2) 이전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후 1619년(광해군 11)에 편찬된 〈호산록〉에 사찰이 화재로 1동만 남았다는 기록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옛 사찰로서의 명맥을 현재까지 잘 유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장방형(직사각형) 평면에 다포식 공포를 얹은 맞배지붕 형식의 불전이다. 정확한 중건 시기에 대한 고증 자료는 없으나, 주요 구조부의 목재에 대한 연륜연대 조사와 방사성 탄소연대 분석을 통해 1630년대에 중건된 것으로 파악된다.

1728년(영조 4)에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집 모양의 닫집을 설치했다는 묵서 기록과 1751년(영조 27)의 중수 사실을 알 수 있는 명문 자료들을 통해 극락보전에 부분적 수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내부 중앙에 불상을 모시는 불단인 수미단을 두고 뒤쪽에 후불벽을 조성한 조선 중기 이전의 구성 양식을 갖는 등 17세기 중건 당시의 형식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17세기에 나타나는 단청의 문양과 채색이 주요 부재에 남아 있고, 대들보와 공포부에는 18세기에서 19세기 이후의 단청 변화가 나타나는 등 17세기 이후 단청의 문양과 채색의 시기별 변화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열암곡 마애부처님' 문학작품 공모전

조계종 문화부 3월 29일까지
시(시조) · 수필 · 소설 · 동화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 핵심과제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고취를 위해 전국단위 문학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 주제는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글이다. 시와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화가 포함되며 참가 자격은 일반인 및 청소년으로 기성작가도 참여할 수 있다. 작품은 1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이메일(jokbmedia@wehago.com)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조계종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대상인 조계종 종정상은 일반과 청소년 분야별 최우수상 작품 중에 선정하며, 상장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인 총무원장상은 총 2작품에 일반 300만원, 청소년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 밖에 우수상(문화재청장상)과 장려상, 입선 등에도 각각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응모작은 미발표 작품이어야 하며, 응모서류와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방문접수가 불가능하며 한글 문서파일 마지막 페이지에 응모자 성명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명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 문화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011-1770

윤호섭 기자

문화사업단, '향적세계' 수강생 모집

정원 24명…선착순 마감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가 2024년 1차 사찰음식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재가자를 위한 초·중·고급 과정과 스님을 위한 승가 초급 과정이 주 1회 3시간씩 총 12주간 진행된다. 강좌당 정원은 24명으로, 선착순 마감이다.

재가자를 위한 초급 강의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마련됐다. 유화 스님이 강의하는 수요반은 오전반(10시~13시), 오후반(14시~17시)이 개설됐고, 수강 기간은 2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동희 스님의 금요반은 2월 23일부터 5월 1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열린다.

중급 과정은 주호 스님이 맡았다. 목요일 오전반(10시~13시), 오후반(14시~17시)에 운영되며, 2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강의한다. 고급 과정은 경운 스님이 강의하며 화요일 오전반(10시~13시), 오후반(14시~17시)에 진행된다. 고급 과정에는 현장 학습도 포함된다. 스님을 위한 승가 초급 과정은 동원 스님이 강사를 맡아 2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월요일 오후(14시~17시)에 강의한다.

향적세계 정규강좌 신청 및 수강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02-2655-2776)로 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보물 '백지은니 수능엄경' 보고서 발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박종서)는 〈백지은니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이하 '백지은니 수능엄경') 권10 보존처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백지은니 수능엄경'은 1356년(고려 공민왕 5) 이방한(李邦翰)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위하여 은니로 필사한 것으로, 능엄경(楞嚴經) 10권 중 마지막 권만 전해진다. 경전의 뒷부분에 간행 경위가 적혀 있고 필자와 연대가 명확하여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백지은니 수능엄경'의 재료 분석결과와 보존처리 과정, 손상 상태, 보존처리 과정 중 세척과 보강에 사용된 재료와 방법에 관한 실험 등 보존처리 전반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전문 사진과 X-선 사진이 별지로 수록됐다.

신중일 기자

祝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全7권 完刊!

大乘起信論 海東疏 血脈記

기신론의 완결판!!!

기신론 해동소 별기를
현대식 어휘로
완벽하게 풀이하였다.

이것이 대승불교다!

대승불교 중흥에는
이 혈맥기 혁명밖에
없다.


원효센터 공파스님 역해/신국판/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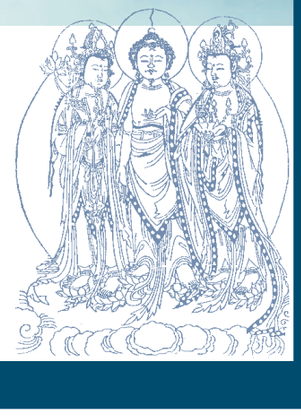
만만한 게 기신론이다. 기신론 안 가르친 스님이 없고 기신론 안 배운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해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신론의 핵심인 대승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명보살의 혈통과 원효성사의 맥박을
펄펄 뛰게 살려놓은

이 혈맥기를 모르고 불교를 말하면 반풍수고
이 혈맥기를 벗어난 수행은 사이비다.

그만큼 이 혈맥기는 대승불교 믿음을 일으키는 데
독보적 필독서다.



• 1권 392쪽, 20,000원 • 2권 424쪽, 20,000원 • 3권 384쪽, 20,000원 • 4권 428쪽, 20,000원 • 5권 468쪽, 23,000원 • 6권 492쪽, 25,000원 • 7권 588쪽, 3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7~1/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도법스님의 신심 명강의:중도연기의 눈으로 본 깨달음의 노래	도법	불광출판사
2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7	가려엮은아함경(재가자편)	허정 엮음	지혜의나무
3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8	붓다 중도로 살다:깨달음은 지금 여기 삶이 되어야 한다	도법 지음	불광출판사
4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9	논어별재(하) 공자가 들려주는 인생경험	남회근	마하연
5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법정스님 원적10주기 추모특별판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10	절관론역주(선전총서3)	우두법융 외/박건주	운주사

책세상

문화유산이 품은 '환상동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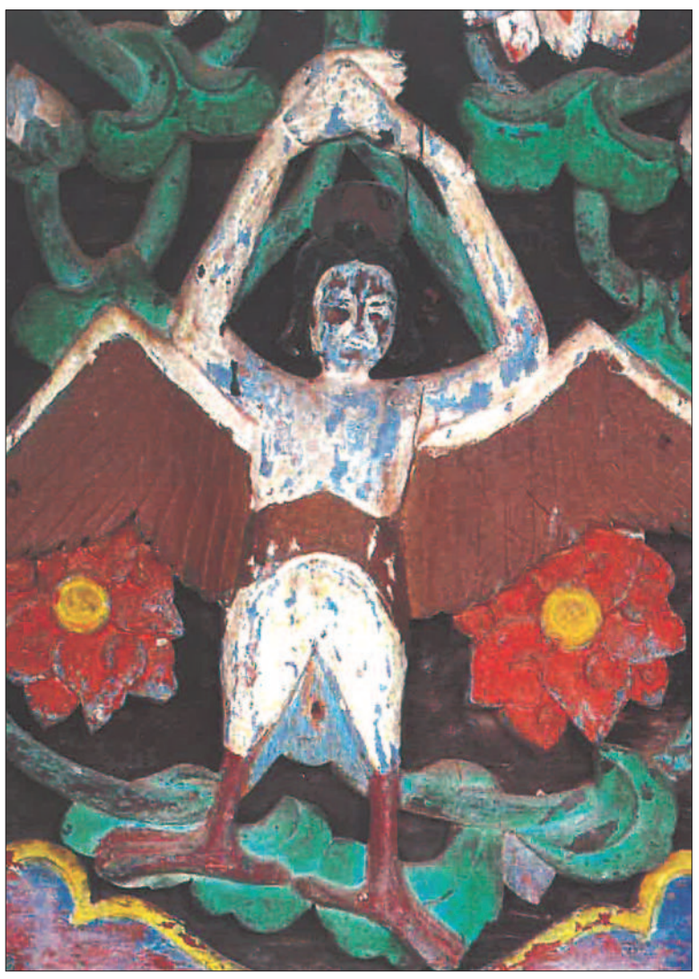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사전
김용덕 지음
담앤북스/ 1만6800원

가릉빈가, 인어, 선학, 천마 등
문화재에 숨은 환상동물 조명해
극락정토 등 동양 이상향 상징
인과응보 · 권선징악 의미 가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아미타 부처의 나라에는 언제나 갖가지 기묘하고 여러가지 빛깔을 지닌 백학과 공작새, 앵무새와 가릉빈가 등이 밤낮으로 하루종일 아름답고 고상한 음성을 낸다.



17세기 조성된 환성사 대웅전 수미단의 가릉빈가.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등장인물에 얽힌 이야기와 설화를 모은 〈경률이상〉에 나오는 대목이다. 아미타 서방정토에서 노래하는 새 중 가릉빈가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동물이다. 가릉빈가는 산스크리어인 '카라빈카(kalavinka)'를 음역한 것으로 한자로는 호음조(好音鳥), 미음조(美音鳥)라고도 한다.

경전 속 가릉빈가는 부처님의 음성을 빗대어 표현할 때도 자주 보인다. 〈불설장아함경〉에는 "여래께서 자비로운 말로 연설하실 때 그 소리가 마치 가릉빈가와 같았네"라고 했으며, 〈구경일승보성론〉에서는 "부처님의 목소리는 가릉빈가처럼 미묘(美妙)한 음성"이라고 표현한다.

가릉빈가는 불화나 조각에서 표현될 때 인면조신(人面鳥身) 도상을 보인다. 이는 인도 산치 대탑에서부터 통일신라에 조성된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조선시대 환성사 대웅전 수미단까지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문화유산 속에는 이처럼 다양한 동물이 등장한다. 호랑이, 거북이, 사슴, 원숭이 등 실제 존재하는 동물도 있지만 가릉빈가, 용과 같이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동물도 있다.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은 여러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활동한 김용덕 한국전통예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우리 문화재에 숨은 환상동물들을 직접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문화 안내서다.

저자가 다루는 문화유산 속 환상동물은 가릉빈가를 비롯해 기린, 뇌공신, 봉황, 선학, 인어 화상어, 천마 등으로 이들은 사찰 전각 벽화, 닫집, 수미단 등 곳곳 숨어 있다.

저자는 '미술은 곧 역사를 표방하는 매개체'라는 모토 아래 예술적 관점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환상동물에 대한 폭넓고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한다. 일반인들이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중적인 시각으로 환상동물을 설명한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환상동물이 표현된 문화재란 신비한 동물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 동양판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재 속 환상동물이 상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자가 설명하는 첫 번째 상징은 이상세계, 즉 현실 속에 존재할 수 없는 환상의 세계인 유토피아다. 환상동물들이 뛰노는 장소야말로 동양적 유토피아인 극락정토, 태평성대, 무릉도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교훈이다. 환상동물은 이솝우화에 등장해 삶의 교훈을 전하는 여러 동물들처럼 우리에게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탄생한 존재라는 것이다.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전달하는 우리 문화재 속 환상동물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을 읽으면, 사찰에서 무심코 지나갔던 문화유산 속 동물들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저자 **김용덕**은?

울산 언양 출생.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울산대곡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연구원과 통도사성보박물관, 옥천사성보박물관, 안면도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했으며, 제2회 한국민화학회 학술논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전통예술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문화유산 칼럼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술은 곧 역사를 표방하는 매개체'를 모토로 삼아 일반인들이 문화유산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와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대한 불교교리 핵심 꿰뚫다



나의 첫 번째 불교책
곽철환 지음
김영사/ 1만6800원

2600년 역사 속의 불교는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등 시대마다 모습을 달리하며 저마다의 사상을 꽃피웠다. 다양한 개론서와 입문서들에서 이를 길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설명을 반복해서 읽어도 불교 공부는 어렵다. 게다가 불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들은 한자를 봐도 이해하기 어렵고 원전어인 팔리어나 산스크리트 단어의 뜻을 찾아봐도 그 의미가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다. '어렵고 복잡해야 불교일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의 모든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시공 불교사전〉 등 여러 불교 안내서를 저술하며 30년 가까이 붓다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소개해온 저자 곽철환이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의 첫 번째 불교책〉을 썼다. 저자는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접근"하면, 즉 공부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을 알면 불교 공부는 쉽다고 답한다.

이 책은 초기불교에서 선불교까지 각각의 교리적 주요 특징을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명료하게 짚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인도에서 시작한 불교는 남북방으로 전파되면서 각 지역의 언어로 경전과 율장, 논서가 번역됐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문으로 번역된 경율론 삼장이 전해졌지만, 현대에는 팔리어본과 산스크리트본의 번역도 접할 수 있게 됐다. 한역 아함경과 팔리어본 니카야를 상호대조하고, 대승의 한역 경전과 산스크리트본 경전의 구절을 비교하며 불교의 여러 사상을 더욱 면밀히 탐구할 수 있게 됐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어떤 경전의 어느 구절이 공부에 더 적합한지 구별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저자는 동국역경원에서 10여 년 동안 불교 경전의 한글 역경에 종사해왔고, 이후 팔리어본과 산스크리트본 경전을 섭렵하며 〈시공 불교사전〉을 비롯해 여러 불교 안내서를 30년 가까이 저술해 왔다. 이를 통해 각각의 교리에 가장 적합한 경전 구절을 선별할 수 있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이 책에서는 니카야와 아함부터 각종 논서와 선어록에 이르기까지, 불교 교리의 주요 개념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적확히 인용하여 교리와 사상의 요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불교, 즉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중도(中道)는 무슨 의미인가?"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묵조선과 간화선은 어떻게 다른가?" "모든 존재에 불성(佛性)이 있다면서 왜 선사들은 '무(無, 없다)'라고 하는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불교 교리에 관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한마디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이 책을 권한다.

불교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처음 접하는 불교 입문서로 좋지만, 오래 공부했음에도 복잡한 교리와 사상을 확실히 안다고 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불교 공부에 중심을 잡아주는 개념 정리와 통찰이 담겨 있다.

26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괴로움에서 괴로움의 소멸로, 분별에서 무분별로, 곧 마음의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나아가는 게 불교의 기본 골격"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가르침의 핵심"을 통찰하면 어떤 경전 어떤 논서를 보더라도 불교 공부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신중일 기자

차(茶)에 먹히지 않는 안내서, 차(茶)와 선(禪)은 하나다!

화제의 신간

초암다실의 미학
-차(茶)와 선(禪)의 만남-



"세상에 차를 마시는 사람은 많지만,
도(道)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차에 먹힌다."
여기서 도(道)는 불교의 선(禪)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차(茶)에 먹히지 않도록 차와 도의 접점을 초암다실의
미학적 구조를 통해 이미지로 보고 체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본문에서-

저자 후루타 쇼킨, 역자 이현옥 | 256쪽 | 22,000원

저자 후루타 쇼킨(古田紹欽, 1911.5.22.~2001.1.31.) 일본의 불교학자이며 문학박사.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인도철학과 졸업. 홋카이도대학, 일본대학, 하나조노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 일본의 불교학자로 불교와 선을 사상적 측면에서 폭넓게연구. 대학시절에 인도철학이나 불교 관계에 대해 너무 난해한 강의를 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현대인도 알기 쉬운 언어로 불교를 해설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역자 이현옥(李鉉沃)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의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불어교육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졸업, 석사. 일본 토호쿠대학 대학원 연구생, 고려대학교 대학원 일어교육학과 석사. 동덕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대학원 문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차문화콘텐츠학과 석사.

나의 일상이 곧 수행이다!

선불교
생활 · 철학 · 문화로 본 선불교의 모든 것



禪

선불교가 활발했던 당송唐宋 시대
선종 사원의 생활과 철학,
그리고 선 문화 등을 통해
선불교와 선수행자의 삶을 들여다본다.

글 윤창화 | 562쪽 | 23,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알아차림만으로도 괴로움 줄어든다



내 인생에 마음챙김이 필요한 순간
존 카밧진 지음
안희영 · 김정화 옮김
불광출판사
1만8000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명상을 말하면서 존 카밧진 박사를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현대 마음챙김 명상의 대부'로 불리는 존 카밧진은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음챙김 스트레스 완화(MBSR) 프로그램 창시자다. MBSR을 1979년에 대중에 선보였으니 벌써 45년간 명상 대중화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 존 카밧진의 MBSR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관련 논문이나 저술, 자료 등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드는 의문 하나. 새로 출간한 〈내 인생에 마음챙김이 필요한 순간〉이 앞서 간행된 책들과 어떻게 다르기에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책은 '몸과 마음의 통증 완화를 위한 5가지 습관'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현대 의학으로도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만성 통증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명상방법을 담아서다. '마음챙김'이 늘 그렇듯 이 책 역시 통증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데서 출발한다.

물론 통증은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통증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은 통증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존 카밧진은 책에서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경험과 관계 맺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치료법에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현대 의학을 보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호흡 마음챙김, 통증에 대처하는 방법, 통증관련 생각과 감정 다루기, 알아차림 속 휴식, 바디스캔 등 일상에서 실천하는 5가지 마음챙김 명상 수련을 제안한 그는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생각과 습관까지 공유한다.

존 카밧진의 메시지는 단순명료하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만성 통증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수식어와 전문 지식을 나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괴로움(고통)은 선택할 수 있다'가 된다. 일종의 경험인 통증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괴로움은 선택의 문제로 바뀐다는 메시지다. 첫 발도

MBSR 창시자가 알려주는
통증 완화 위한 5가지 습관
"통증과 어떤 관계 맺느냐로
괴로움은 선택의 문제 된다"

떼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긴 쉽지 않겠지만 말이다.

존 카밧진은 통증이라고 여기는 대부분이 통증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과 감정 혹은 느낌이며, 이것들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괴롭다는 사실부터 이해시킨다. 그리고 통증이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습관을 이야기한다. 바로 마음챙김 명상으로 스트레스 등을 완화하는 프로그램 MBSR이다.

존 카밧진은 어떤 의학적 치료를 받든 이를 보완해주는 8주간의 MBSR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책에서는 극심한 통증과 통증으로 발생한 괴로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특히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서부터 문제의 핵심에 다가간 뒤 통증을 다루는 7가지 원칙을 설명한다. 그는 또 △잠에서 깼을 때 바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기 △오늘 무슨 일이 펼쳐지든 마음챙김으로 인도하기 △하루 종일 가능한 한 많은 순간에 머물러보기 △자신이 아프더라도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가지 친절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감사, 관대, 친절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기르기 △목숨이 달린 것처럼 매일 수련하기라는 6가지 마무리 제안도 덧붙였다.

"모든 호흡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존 카밧진을 따라 괴로움을 이해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보자. 여기에 더해 존 카밧진 명상앱을 통해 지속적인 수련을 지원하는 다양한 오디오와 비디오, 텍스트 자료를 경험할 수 있다.

색칠할수록 마음 맑아지는 컬러링



동자승 컬러링 100
용정운 글 · 그림
조계종출판사
1만9000원

컬러링은 집중력을 높여주고 현대인의 복잡한 머릿속을 쉬게 해준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색칠해 그림 한 장을 완성할 때마다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동자승 컬러링 100〉은 색칠하는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심플하고 아름다운 도안이 돋보이는 컬러링 책이다. 불교 그림작가이자 부처님 가르침을 글과 그림으로 전하는 용정운 작가가 수년간 그려온 '동자승' 그림 100개를 컬러링하기 좋게 도안으로 다듬어 한 권에 담았다.

연잎 위에 사뿐히 올라앉은 동자승의 미소, 꽃 속에 다소곳이 앉아 합장한 모습, 가부좌한 다리 위에 손을 포개고 명상에 든 모습, 꽃밭 위에 누워 살풋 잠든 모습,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고 활짝 웃는 개구진 표정, 수박밭에 앉아 입 안 가득 수박을 베어 무는 모습,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까르르 웃는 모습 등 펼치는 페이지마다 함박웃음을 짓게 하는 동자승들의 모습이 가득하다.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 아무 페이지에서든 채색하면 된다. 중간중간 작가가 색을 입힌 채색본 10장이 가이드라인이 돼 주지만 꼭 그것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자유롭게 색칠해보자. 하늘, 바닥, 벽면, 배경 등의 여백에 그리고 싶은 것을 직접 그려 넣어 자신만의 동자승 그림을 완성해가는 재미도 이 책이 가진 매력이다.



"빈 공간에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꽃들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새, 구름, 하늘, 바다…. 모든 자연을 그려 넣으셔도 됩니다. 혼자 있는 동자승 옆에 친구를 그려도 되고 말풍선도 달아보세요. 자신이 그리고 싶은 걸 맘껏 추가해주셔도 됩니다."

250x250㎜의 큼지막한 책 크기에다가 양쪽 페이지가 활짝 펼쳐지는 특수 제본이어서 색칠하기도 편하다. 색칠 후 한 장씩 떼어내 액자에 넣거나, 벽에 붙여 장식해도 좋다.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컬러링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입문서로 안성맞춤이다. 임은호 기자

▲용정운 작가는?

명상카툰 · 불교 그림작가이며 시각디자이너, 부처님 법을 글과 그림으로 회향하는 수행자다. 불교 그림책 〈몽이의 깨달음〉 〈마음공부 만다라 컬러링 100〉과 명상 카툰집 〈걱정하면 지는 거고 설레면 이기는 겁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을 펴냈다. 현대불교신문에서 연재한 〈I Love Buddha〉를 포함해 다수의 불교 매체에 명상 카툰을 연재했다. 2011년 올해의 불서 우수상을, 2012년 불교언론문화상 인물 부분 특별상을 수상했다. 홈페이지 imagebori.com 인스타그램 @yongjungoun

새로 나온 책



마음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
김태완 지음/ 침묵의 향기/ 2만3000원

마음공부에 관한 질문과 선지식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문답집이다. 마음공부를 해 온 구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질문들에 관해, 김태완 무심선원 원장이 114개의 주제로 나누어 깊이 있게 다루며 상세하게 답했다.



'최강 소니TV' 꺾은 집념의 샐러리맨
이승현 지음/ 꽁치북스/ 1만6000원

조계사 신도회장인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의 인생 역정을 담은 책이다. 이 대표는 일본의 삼성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겪은 이야기들을 담았다. 우연히 파고든 불교 공부에 대한 일화들도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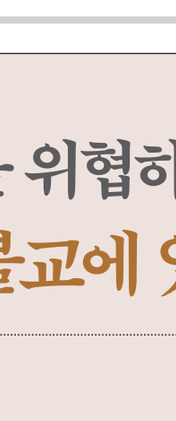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주현덕 지음/ 나무의 마음/ 1만7800원

멘탈케어 전문가이자 아이돌과 연습생들의 상담 선생님인 저자가 1000회 넘게 그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고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내용을 가려 뽑고 새롭게 정리한 사랑 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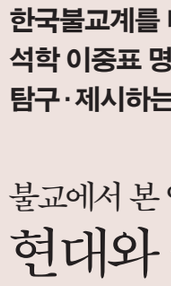
우리는 왜 혼자이고 싶은가
냇 세그니트 지음/ 김성환 옮김/ 2만5000원

은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만큼이나 인간의 아주 오래된 충동이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은거를 선택했고, 현대를 사는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은거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인간의 은거에 대한 열망과 집착을 탐색한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지혜
데이비드 호킨스 지음/ 박찬준 옮김/ 1만9000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대표적인 가르침을 담은 강연집이다. 이 책에는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포럼, 웨스트민스터 사원 등지에서 했던 수백 시간의 강의 가운데 엄선한 10가지 핵심 주제가 실려 있다.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살려 입말을 그대로 옮겼으며, 폭넓은 가르침들을 보다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네 느낌은 어떤 모습이니
앤디 J. 피자, 소피 밀러 지음/ 김세실 옮김/ 1만5000원

〈네 느낌은 어떤 모습이니〉는 아이가 자신의 감각, 감정, 생각, 느낌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면서 내면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다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책을 펼친 독자는 저자의 안내에 따라 신기한 투명 안경을 쓰고서 털북숭이 모습의 가려움, 햇살이 사방으로 퍼지는 모습의 고마움, 두 눈을 가늘게 뜬 까만 두려움 등 알록달록 귀여운 모습의 느낌들을 만난다.

온전한 내 삶을 찾게 해주는
'즉문즉설의 대가' 혜봉 법사의
친절한 명상 수업!



알아차림부터 화두까지,
명상의 보석 같은
정수만 쏙쏙 뽑아
문답으로 정리한 명저!
내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지혜를 찾다.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오상목 지음 | 416쪽 | 20,000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의 해답은
불교에 있다!



생태계의 파괴, 환경 오염,
인간성의 붕괴 등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명예교수가
탐구·제시하는 불교적 해법!

불교에서 본 인간·자연·생명
현대와 불교사상
이중표 지음 | 272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이 세상을 만든 건 마음…마음의 주인공 돼라”

영하 7도. 혹한의 날씨였다. 1월 15일 조계종 총무원 4층 원로회의 의장실에서 의장 자광(慈光) 대종사를 친견하고 고준한 법문을 들었다. 대종사의 법명대로 자비(慈悲)의 광명(光明)이 보는 이의 가슴에 비췄다.

자광 대종사는 가장 먼저 불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건넸다.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을 비롯해 불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설날 떡국을 먹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늘게 됩니다. 철이 든다는 말의 의미는 계절감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봄이 오면 신록이 돋고, 여름이 오면 녹음이 짙어가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 뒤 조락하고, 겨울이 되면 나목(裸木)이 되는 사계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노년이 될수록 가는 세월이 아쉬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납승은 ‘공수래공수거’라는 게송을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으면서 어쩌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온갖 것을 다 가지려 하는가? 혼신을 다해 쌓아놓았던 것이 천만 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세연이 다해 감에 이 모두가 헛일인 줄 알았네. 무엇을 가져갈꼬. 무엇을 두고 갈꼬. 생각 좀 해보세. 참된 내 것이 무엇인지….

불자 여러분은 삶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리이타(自利利他),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로운 일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불자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갈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광 대종사가 바라보는 불교의 요체는 ‘인연법(因緣法)’이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이 만들었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신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바로 연기(緣起)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호지하고 받드는 화엄신중(華嚴神衆)은 있으나,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부모님에게서 비롯됩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는 반드시 업보(業報)가 따릅니다. 엄밀히 말해서 모든 행복과 불행, 나아가서는 우리의 존재까지도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노예가 되고 피조물이 됩니다. 불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육도윤회를 초월하는 세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광 대종사는… 구례 화엄사에 입산해 경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거쳐 동국대 종비생 1기로 졸업하고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했다. 월남전에 참가하기도 한 대종사는 귀국 후 3군 선봉사와 육군사관학교 호국선원을 창건했다. 1981년 육해공군 군승단장을 역임했으며, 1987년 대령으로 진급, 3군 군종참모와 국방부 군종실장을 지냈다. 1995년 대령으로 예편하고 다시 종단으로 돌아가서 수행자가 됐다. 이후 조계종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과 호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계위원을 역임했다. 2019년 원로의원으로 선출됐고, 2023년 4월에는 원로의장으로 선출됐다.

정치인들이여 화장터에 가보라

혼돈의 시대, 자광 대종사는 이어서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에게는 경책(警策)의 쓴소리를 전했다. 자광 대종사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취임 직후 취임사를 통해 “나라가 혼란하면 원로회의가 따끔하게 경책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책은 죽비로 어깨를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의미로써 선방(禪房)의 용어이다.

“〈법구경(法句經)〉에 이르길, ‘파초는 열매를 맺으면 죽고 사람은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죽음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사회지도층은 이 경구를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경제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을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맹자(孟子)〉에는 ‘기신정천하귀지(其身正天下歸之)’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청정하면 천하가 그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지도자들은 항상 청정한 마음을 지니고 청정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니 국민들이 사회지도자들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지도자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지도자들은 탐욕이 아닌 자비심을 지녀야 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덕담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두고 갈까

참된 내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

‘이타행’으로 남에게 이로운 행동을

정치 · 경제계 인사 향한 경책

지도자의 탐심, 사회 어려움 가져와

탐심 생길 땐 화장터 등서 봉사하며

생사가 일여하니 무상함을 알아가라

그러면서 자광 대종사는 탐심을 없애는 비법을 우리 사회지도자들에게 제안했다.

“첫째 방법은 무료급식소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추위 속에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직접 봐야 합니다. 그래도 탐욕이 없어지지 않으면 화장터 인근 장례식장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줌의 재로 변한다는 것을 보고서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고인을 보내고 슬픔에 젖어 있는 유족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도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공동묘지에 가서 천막을 치고서 일박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룻밤을 묵는 게 아니라 천막 안에 앉아서 명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몸소 깨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다다르면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무엇을 가져가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고 갈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심시도’ 은사스님 가르침

자광 대종사는 은사인 경산 스님(1917~1979)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역설했다. 1960년대 말 경산 스님은 상좌인 자광 스님을 부른 뒤 군승이 되라고 지시했다. 당시 자광 스님은 제대한 뒤 선방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산 스님이 상좌에게 “군승이 돼라”고 지시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조계종은 1968년 군승(軍僧) 제도를 마련했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 조계 종 총무원장으로서 군승 제도 도입에 앞장섰던 경산 스님은 자신의 상좌부터 군승 파견의 모범을 보이길 바랐던 것이다. 은사스님의 하명(下命)에 따라서 자광 스님은 1970년 임관해 25년 동안 군포교의 일익을 담당했다.

“은사스님께서는 총무원장 재임 시 동국대 종비(宗費) 장학생 제도 도입,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등 종단의 숙원 사업을 이뤘습니다. 그런가하면 은사스님께서는 1968년부터 1972년까지 4년 동안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無門關)에 들어가 용맹정진하시기도 했습니다. 은사스님의 가르침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일상생활에 몰두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도라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은사스님께서는 신도들에게 ‘평상심시도’ 휘호를 선물하곤 했습니다. 무문관 수행 뒤 은사스님은 ‘도를 통했는가 하는 문제는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설하셨습니다.”

13면에 계속

齋(재) 의식의 변화 종이연, 종이용선, 대체용
•태워서 환경오염시킴 없이 한 번 구입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연
•정교한 조각, 화려한 휘장 금단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출원번호 30-2022-0052348
출원번호 030-0949904
가볍습니다 4kg
금단청연
적단청연
규격 W45cm x H65cm 가격 ₩150만원
위패나 사진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서랍식으로 제작됨
양손잡이가 부착되어 가볍게 들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들고 배에 부착하여 편하게 받들 수 있습니다.
포교당 사용
대형 연
영단의 장엄
輦(연) 소형
40여년의 외 길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幡(번) 공단자수
번의 종류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시왕번
•칠여래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한국불교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010-8441-6814

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전법도생, 불자의 사명…부루나 존자처럼 전법을”

12면에 이어

전법제일 부루나의 후예

은사 지시로 군승 임관해 포교 매진
4만 6천명 수계… 불교 인재 양성해
“구국성사 가르침 이어 전법 나서야”



자광 대종사의 논산훈련소 법당 호국 연무사 건립 공덕을 기리기 위한 비문 제막식.



2019년 동국대 직접 고용 미화근로자 직원증 수여식. 자광 대종사의 상생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다.

자광 대종사는 다종교 사회의 종교화합에 대한 해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연기(緣起)의 법칙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러니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 간 갈등은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고등종교는 황금률(黃金律)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는 자비를,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공업중생(共業衆生)임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치를 몸소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종교 사회의 종교화합에 대한 해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월남전 참전했다가 베트콩들에게 붙잡혀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당시 저는 베트콩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함으로써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삼청교육대에서 기간병과 교육생들이 총기를 들고 대치했을 때도 저는 ‘부모님 은혜’라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반목하고 있는 두 집단 구성원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총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처럼 대립과 반목의 상황을 원융과 화쟁의 상황으로 유도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와 너는 다르지 않습니다.”

원융 · 화쟁 실천…군포교 레전드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부처님을 본다”는 것이 자광 대종사가 내놓는 궁극적인 상생의 가르침이다.

원융(圓融)과 화쟁(和諍)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온 자광 대종사는 5사단 군종 참모로 재직할 당시 군대 안에 교회를 짓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군종 참모로 부임한 직후 자광 대종사는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고 방치된 교회 건물을 발견하고서 한경직 목사를 찾아가 “기독교를 믿는 장병들을 위해 교회를 지어 달라”고 간청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한경직 목사가 교회를 완공함으로써 부대 장병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자광 대종사가 종교화합에 앞장섰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다. 자광 대종사의 행장은 전법(傳法)과 포교(布敎)라는 두 글자로 귀결된다. 대종사가 수계법회를 통해 계를 준 장병이 4만6000여 명에 달하고, 장병을 상대로 한 법회가 4600여 회에 이른다. 다수의 군법당이 대종사의 원력에 의해 건립됐다. 자광 대종사는 “불자의 기본 사명은 전법도생(傳法度生)”이라고 역설했다.

“부루나 존자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대중을 위해 설법하여 수많은 사람을 교화했습니다. 부루나 존자는 상대의 주장을 잘 듣고서 차분하게 지혜를 일깨워줬습니다. 말년에 부루나 존자는 자신의 고향인 수로나국에 부처님의 법음(法音)이 전해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수로나국 사람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성격이 거칠었습니다. 전법의 길을 나서겠다는 부루나 존자에게 부처님께서는 ‘수로나국 사람들이 칼로 그대를 죽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물었고, 부루나 존자는 ‘수로나국 사람들이 나를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큰 공덕을 짓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변방의 포교를 위해 목숨 걸고서 의연하게 길을 나서는 부루나 존자의 일화에서 우리는 전법도생만이 불교의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불교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스님들이 도성 안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승병을 조직해서 왜적을 물리쳤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산·사명·영규 대사입니다. 이 스님들의 활약은 호국(護國)을 넘어선 구국(救國)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불자들은 구국성사들의 보살행을 귀감삼아서 적극적으로 전법도생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광 대종사는 이어서 사회적 약자에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불자의 길임을 강조했다.

“제가 동국대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학교 미화원들이 장기간 파업을 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저는 미화원 전원을 직접 고용키로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애환을 외면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직원 명찰을 가슴에 달고 다니시는 미화원 분들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무명세계 비추는 마음의 등불

자광 대종사는 인터뷰 말미에 필자에게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모든 종교의 최종 목표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苦)의 해결입니다. 불교적인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과는 다릅니다. 뼈다귀를 문 개의 우화가 있습니다. 개는 뼈다귀를 물고 가다가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개는 물에 비친 게 자신인줄 모르고 짖어대다가 그만 뼈다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해지는 게 인생사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광 대종사는 이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천국이나 지옥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생을 저지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바로 지옥이고, 그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고 뉘우치고 착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천국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살도록 하는 것도, 천국에 살도록 하는 것도 마음이 꾸미는 일입니다. 백운 스님의 ‘무심가(無心歌)’를 보면 마음의 작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윽고 자광 대종사는 ‘무심가’를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버리되 마음은 비우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비우되 경계는 버리지 않네.
마음을 비우면 경계는 저절로 고요해지고
경계가 고요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여여(如如)해지리니
이것을 무심진종(無心眞宗)이라고 하느니라.

–백운 스님의 ‘무심가’中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필자의 입에서는 ‘무심가’와 심상(心象)이 유사한 한 편의 게송이 떠올랐다. 그 게송은 다름 아닌 자광 대종사가 지은 〈알았네(覺)〉였다. 고려의 태고 보우 국사는 ‘취모검(吹毛劍)’이라는 선시에서 문수보살의 지혜를 일컬어 “일천 성현들의 경계 밖에서 소요 자재하는데 달빛에 비친 갈대꽃이 눈처럼 새하얗다”고 비유했다.

자광 대종사의 〈알았네(覺)〉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심왕(心王)인 동시에 만물을 생장시키는 바탕이 되는 심지(心地)임을 밝힌 ‘깨침의 소리’이다. 마음은 실체가 없으되 한시도 쉬지 않고 작용을 하니 ‘꺼지지 않는 등불(無盡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이라는 등불은 무명(無明)의 세계를 환히 비춰준다. 또한, 마음은 ‘뿌리 없는 나무(無根樹)’와 같아서 영겁토록 시들지 않고 꽃을 피우고, ‘밑 없는 발우(無底鉢)’와 같아서 광대무변한 허공계(虛空界)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평자들이 자광 대종사의 〈알았네(覺)〉를 이 시대의 오도송(悟道頌)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불교에 정통한 선지식이 오랜 수행 끝에 마음의 경계를 시의 율격에 맞춰 풀어놓았으니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쉬우나 그 의미를 음미해서 보면 만상이 들락거리되 각양각색을 통합하는 진법계의 실상이 아닐 수 없다.

마음, 마음, 마음이여,
모양도 색깔도 부피도 무게도 없는 마음
한계가 없으니 우주를 싸고 남았고
가고 옴이 없으니 항상 존재하고
무게가 없으니 우주를 짊어졌고
성내고 기뻐함이 없으니 항상 평화롭고
색깔이 없으니 각양각색을 통합하였네.

마음에서 허공이 나왔고
시간과 공간이 나왔고
중생과 부처가 나왔고
천당과 지옥이 나왔으니
과연 삼라만상을 창조하였도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진법계의 실상이여
만상이 들락거리는구나.

– 자광 대종사의 ‘알았네(覺)’

유응오 / 작가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일본 교토
벗꽃여행 4일
3월25일 출발~3월28일 도착(3박4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동복사–아라시야마 천룡사–광륭사–동사–삼십삼간당 등 모두가 벗꽃이 만발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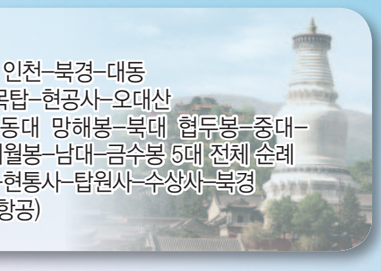
인도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2월26일 출발~3월07일 도착(11일 일정)
동참금 | 30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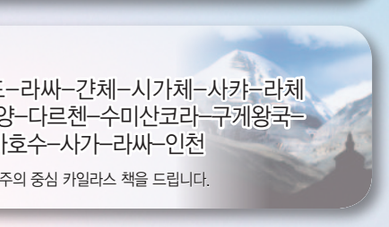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1차 2024년 4월12일~4월21일(9박10일)
2차 2024년 5월17일~5월26일(9박10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 · 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 · 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 · 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화염산,고창고성,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5월16일 출발~5월 20일 도착
동참금 | 문의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
▶5일 : 북경–인천(대한항공)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2024년 6월07일~6월22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❷ 오대산 상원사



▶한줄 요약
세조도 문수동자도 '말하지 마라'고 한 비밀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과연 누가 이 비밀을 발설하였을까?

오대산 나투신 문수보살을 친견하다

신라 자장 스님(590~658)은 643년(선덕여왕 12)에 당나라 오대산 태화지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와 가사를 전해 받았다. 이후 신라로 돌아와서 인연 있는 곳에 사리를 봉안하였다. 그중 다섯 곳인 양산 통도사, 오대산 중대(상원사),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 등을 5대 적멸보궁이라 한다.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은 상원사에서 걸어서 50분 정도 걸리는 데다 그렇게 급경사도 아니다.

상원사는 문수보살이 계신 문수도량이다. 흔히 상원사는 중대 적멸보궁이 세워진 643년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때는 자장율사가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때다. 그래서 약 60년 뒤 신라의 보천과 효명 두 태자에 의한 창건으로 보기도 한다. 그 근거는 〈삼국유사〉 제4권 '대산오만진신'에 있다.

보천, 효명 두 태자가 산중에 이르자 푸른 연꽃이 갑자기 폈다. 형 보천태자는 그곳에 암자를 짓고 수행하였다. 그곳에서 600여 보 떨어진 북대 남쪽 기슭에도 푸른 연꽃이 갑자기 피어나자 아우 호명태자가 암자를 짓고 수행하였다. 하루는 형제가 오봉에 올라가 예배하고자 하는데, 동대에는 1만 관음보살, 남대에는 8대 보살과 1만 지장보살, 서대에는 아미타부처님과 1만 대세지보살, 북대에는 석가여래부처님과 500 대아라한, 중대에는 비로자나부처님과 1만 문수보살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5만 진신(眞身)에게 일일이 예배하였다. 매일 첫 새벽이면 문수보살은 진여원(지금의 상원사)에 와서 36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후 왕위를 승계할 일이 생기자 동생 효명태자는 왕이 되고, 형 보천태자는 남아서 수행을 계속하였다. 효명태자가 왕이 된 지 몇 해만인 705년(성덕왕 4)에 진여원을 고쳐 세웠다. 왕이 친히 백관들과 산에 이르러 불전과 불당을 짓고, 문수보살 소상을 만들어 당에 모셨다.



문수보살이 동자로 화현해 세조의 등을 밀어줬다는 내용을 표현한 그림.



상원사 동종.

세조의 등 밀어준 문수보살

문수도량인 상원사는 조선 세조(1417~1468, 재위 1455~1468)의 원찰(願刹)이다. 근처에서 문수보살이 세조의 등을 밀어주었다는 이야기는 흥미롭다.

세조는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어느 날 밤 세조 꿈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났다. 세조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하였다.

"에이 더러운 인간아. 어린 조카를 죽이다니. 조카의 자리가 그렇게도 탐이 났더냐. 에이, 더러워라."

그 후 꿈속에서 침이 묻은 부위에 종기가 났다. 종기는 차츰 온몸으로 번지고 고름이 생겼다. 점점 심해졌다. 신비한 영약을 동원해도 효험이 없었다. 신미 스님의 권유에 따라 세조는 부처님 가피로써 치유하고자 전국의 영험 있는 기도처를 찾아다녔다.

세조는 상원사로 향하던 중, 근처 계곡에서 목욕하고자 하였다. 몸에 난 종기를 보이지 않고자 시종들을 물리치고 혼자 목욕하였다. 누군가 등을 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동자가 나타나 등을 밀어주었다. 목욕을 마친 세조는 동자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도 임금의 옥체를 씻어주었다고 말하지 마라."

동자는 말하였다.

"임금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이 몸을 씻어주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동자는 홀연히 사라졌다. 그 후 세조의 몸에 난 종기도 사라졌다. 세조는 감격하여 화공에게 문수동자를 그리게 하였다. 그림이 완성되자 다시 나무로 문수동자상을 조성하여 상원사에 모시게 하였다.

지금 상원사 법당에 있는 문수보살상이 그 불상이다. 또 상원사 입구에 있는 관대걸이는 세조가 목욕을 위해 의관을 벗어놓은 곳이다.

조선 세조의 원찰인 상원사
세조 만난 문수보살 이야기
한암 스님의 가람 수호까지
수많은 이야기 전하는 도량

세조가 문수동자에게 "누구에게도 임금의 옥체를 씻어주었다고 말하지 마라"고 한 것은, 임금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없는데 혹 이 일로 동자가 화를 입을까 염려하여 당부한 말이라는 풀이도 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다. 세조도 문수동자도 '말하지 마라'고 한 비밀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과연 누가 이 비밀을 발설하였을까? 세조, 문수동자, 아니면 제3의 목격자일까? 세조가 문수보살을 그리게 하였으니 세조가 의심스럽다. 물론 이것도 상상이라거나 꿈에 보았다고 하면 그뿐이다. '너만 알고 있어' 하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

한편 충북 영동 반야사, 속리산 법주사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다. 세조의 업이 강하여 병이 재발하였는지, 아니면 중생을 끝까지 안아주는 문수보살의 자비심인지, 세 번에 걸친 치유의 손길이었다.

연꽃봉오리 하나 없는 범종

상원사에는 고양이 도움을 받아 세조가 자객으로부터 목숨을 구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단지 전설일 뿐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보기도 한다. 만약 사찰에 자객이 있었다면, 그 사찰은 물론 대중스님도 무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상원사와 세조의 인연이 깊기 때문이리라. 현존하는 한국 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상원사 동종 또한 세조와 인연이 깊다.

상원사 동종은 통일신라시대(725년, 성덕왕 24)에 제작되었다. 처음부터 상원사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봉안되었는지 알 수 없다. 안동 고읍지 등 기록에 따르면, 고려 후기 안동 인근 사찰에서 안동 읍성 문무로 옮겨 매달았다. 1469년(예종 원년)에 선왕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명으로 상원사로 이운하였다. 혹은 세조가 직접 그의 원당인 상원사에 봉안할 종을 구하고자 전국을 다녔고, 그 결과 안동 문루의 종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여하튼 안동에서 상원사로 옮기는 도중 죽령에서 종이 더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종의 연뢰를 하나 절단하여 안동으로 보내 제사를 지냈더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개인적으로 종유(鍾乳) 또는 유두(乳頭) 대신 연뢰(蓮蕾)라는 말을 권한다. 범종인데 젖꼭지보다는 연꽃봉오리가 더 어울린다. 자세히 보면 연꽃이다. 9개의 연뢰를 둘러싼 테두리도 유곽(乳廓)이 아니라 연곽이다.]

혹은 이런 의견도 있다. 왕명으로 옮기는 종을 운송책임자가 함부로 파손할 수 있겠으며, 왜 하필이면 연뢰를 잘라야만 했을까. 없어진 연뢰는 주조 당시의 결함 또는 운송 시 파손 가능성이 있다.

화마로부터 지켜낸 한암 스님

현재 상원사 동종은 보존을 위해 타종하지 않는다. 똑같이 만든 종으로 대신하다. 사연을 알면 보는 것으로도 다행이다.

해방 직후 상원사 법당에 큰불이 났다. 그 불이 범종각으로 옮겨 붙기 직전이었고, 물을 구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때 한 스님이 장독의 장을 부어 불을 끄게 하였다. 스님의 기지로 한순간에 사라질 뻔한 귀중한 성보를 구할 수 있었다.

그 스님이 바로 한암 스님(1876~1951)이다. 한국전쟁 때도 한암 스님의 법력이 있었다. 1·4후퇴 당시 오대산이 인민군 아래 들어가기 직전, 군에서는 오대산 내 모든 사찰을 소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월정사를 불태우고 군인들이 상원사로 올라왔을 때, 다른 대중은 모두 피하고 76세의 한암 스님만 홀로 법당에 앉아 있었다. 장교는 절을 소각하고자 하니 법당에서 나오라고 하였다. 스님은 말씀하였다.

"그냥 불을 놓아라. 불법을 위해 죽을 것이다. 중이 죽으면 어차피 화장해야 한다. 그대가 군인의 본분에 따라 명령에 복종해야 하듯이, 절을 지키는 것은 승려의 본분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승려의 본분을 지키다 죽을 것이다."

스님에게 감화를 받은 장교는 명령을 따르는 방편으로 법당 문짝만을 떼어서 마당에 놓아 불을 지른 다음 떠나갔다. 이때 상원사 법당은 물론 문수보살상, 상원사 동종도 무사할 수 있었다. 한편 월정사에 있던 범종은 월정사가 불탈 때 함께 녹아버렸다. 이처럼 한암 스님은 두 번이나 화마로부터 상원사 동종을 지켜냈다. 그리고 중대 사자암의 단풍나무는 스님의 법력이 아직도 오대산에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단풍나무는 거꾸로 꽂았던 한암 스님의 지팡이가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학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 추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벨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68호 | 15 | 전면광고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60평, 외전각 3채
- 주변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35억
- 경기분당포교원
- 8층 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역세권, ev. 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 임 야 : 2,000평
-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고 기도하기 좋은 절입니다.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약 50평
- 건물 : 3동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 방3개, CCTV 4개
- 가액 : 6천
- 부동산 전화 사절
- 비구니 스님환영

010-7506-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5000만원

010-9456-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 임야 : 대 485평
- 가액 : 5억 8천
- 건물 : 삼존불 3자 동불, 법당, 요사채, 공양간, 별채

010-3230-5656
010-8001-073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43 (호계동)
- 3층 상가건물 3층 약 45평 방3칸 법당시설 완료되어있음
- 임대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
- 포교지로 적합

010-9110-3301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회원구 회원동
- 임대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800만원
- 도심 번화가에 포교지로 적합

010-4438-8868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010-4727-6065

명상원 최적지 안내

- 위 치 : 강원도 영월 연하리 연하계곡
- 부 지 : 9,600평, 650고지, 차량진입 가능
- 집 1채 (2층 사용), 집 창고 1채
- 십승지, 사찰 및 사찰 요양원 최적지
- 일반 건강 요양원 최적지, 교육원 시설 최적지
- 글램핑캠핑가능, 최상의 자연환경
- 가 액 : 10억 (약간의 조정 가능)

010-6701-7709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 불교대학 • 극락원 납골당

정토사는
- **기도성취 도량** 하루 세 번 불공 기도 봉행, 5개 법당 24시간 개방, 기도 재의식 우리 말로
- **포교교육 도량** 매년 고승 명사 초청법회, 불교대학 주 · 야간반 경전반 주 · 야간, 각종 문화 교실 운영
- **재 전 문 도량** 재 전문 법당 지장전이 있으며 49재, 천도재, 기제사 등을 모시는 전문도량
- **자비 실천 도량** 장학 봉사단체 사)참좋은세상, 무료급식소 운영, 복지관 지원, 군경수계법회 등

◉ 정토사 불교대학

불 교 대 학 : 46기 주 야간반 매주 수요일 수업, 1년 과정 입학식 – 3월 9일(토) 14:00
대학원(경전반) : 매주 화요일, 3월 5일 개강, 주간반–화엄경, 야간반–맛지마니까야

◉ 정토사 문화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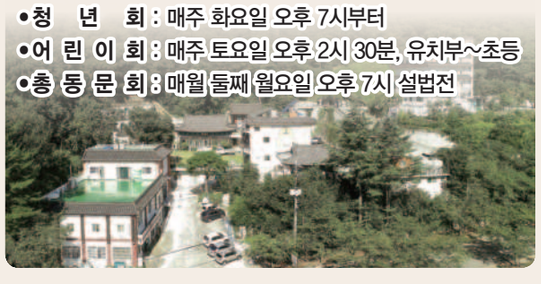
- **가람청소년 합창단**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2시 20분, 7세~고3, 성악가 지도
- **태 화 합 창 단** : 매주 목요일 10시, 성악가 김희남 지도, 법회 및 49재 등에 음성공양 봉사
- **어 울 림 합 창 단**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설법전, 남녀 혼성, 성악가 박준홍 지도
- **민 화 연 구 반** : 매주 금 10:00~16:00, 야간반 19:00, 전통 민화를 바탕으로 그리기 작품활동
- **오 카 리 나 반** : 매주 수요일 13:30~14:30, 초급 · 중급1 · 중급2 · 고급

◉ 기도 · 수행반

- **금강경 독송 기도** : 1, 3, 금요일, 저녁 7시 / 설법전, 예불 / 한문음 3독, 우리말 1독 / 정근
- **다 라 니 기 도** : 매월 첫 월요일, 7시~9시 / 삼천불전, 누구나 오세요
- **금 요 선 방**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9시, 참선(조사선, 화두선) 수행, 삼천불전, 누구나 환영
- **마인드케어 수행반** : 매주 월 · 금 10:00,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위빠사나 수행
- **싱잉볼 명상 요가반** : 매주 수요일 13:30~15:30, 소리 및 요가 동작으로 오감 안정 치유

◉ 정토사 정기법회 안내

- **초하루 월초신중법회** : 음력 초하루~초삼일, 불공, 축원 설법
- **보 름 법 회** : 음력 15일, 동참인 축원, 인등축원, 설법
- **지장재일법회** : 음력 18일, 지장전에서 영가축원
- **관음재일법회** : 음력 24일, 동참가족 축원
- **청 년 회**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 **어 린 이 회**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유치부~초등
- **총 동 문 회** :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7시 설법전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추모관 극락원

가까운 곳이 명당! 조상님을 부처님 품 안에!
울산 도심의 영구봉안 납골당!

정토사 극락원 봉안당의 좋은 점
- 도심에 위치해 왕래 참배 용이
- 봉안영가 설 추석 합동차례 봉행
- 자연통풍, 자연채광의 쾌적한 최신시설
- 다양한 형태의 납골함 및 안치단 보유
- 부부단, 가족단, 문중단 원하는 위치 배정
- 이장 및 개장 유골의 임시 봉안 가능
- 49재, 천도재, 기제사 전문사찰
- 매일 염불 · 왕생극락 축원기도







■ **정토사**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17번길 15(옥동) ☎ 052-258-9944
■ **정토사불교대학** ☎ 052-274-3800 ■ **납골봉안당 극락원** ☎ 052-212-7000
■ **산하 덕진스님 법문·염불·찬불가 등 YOU TUBE '울산 정토사'**
■ **인터넷 홈페이지 www.jungtosa.com** 스마트폰 '정토사App' 구글플레이 스토어 다운
■ **장학봉사복지단체 사)참좋은세상** ☎260-0707
■ **무료급식소** ☎271-0079 ■ **평생교육원** ☎271-7003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68호 | 16 | 전면광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 할 수는 없다. 현실 속에 살면서도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유마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부처님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들도 필히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티끌만한 거짓도 허망도 없는 진실뿐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법회를 마련하시면 참석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010-5366-4905 무심 합장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五臟의 根源인 肝을 지킵시다

(오장) (근원) (간)

肝(간)을 지키는 다슬기 기름

간 건강에는 다슬기 기름



TV조선 코리아헌트 방영

더욱 다양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NAVER 우미산 다슬기기름으로 확인하세요

T. 010-3529-0077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자연(기) 치유 힐링쉼터

자연(기)치유 원리는 우주에 늘 가득하여 전지전능하며 영원불멸하는 우주만물의 창조근원인 우주무한생명기운을 환자의 체내로 불어넣어 환자의 생명기운을 북돋움으로써 체내 손상된 체세포들이 지극히 빠른 속도로 정상적 건강세포로 원상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자연(기)치유는 기치유자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하는 일은 오직 우주 원기운 즉, 우주본성을 환자의 체내에 불어넣기만하고 모든 치유는 우주본성에 의해 저절로 되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일반기공사들의 기공치유와 그 원리측면에서 크게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광희기치유는 선천이 아닌, 후천적으로 생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자연(기)치유 힐링쉼터에서 새로운 삶을 누려보십시오.

치유대상: 관절협착증, 신경통, 녹내장, 산후풍, 불면증, 통풍, 공황장애, 냉한별, 이명, 소화장애, 불안증, 심장질환, 호흡장애, 비염, 각종통증, 난치성 질환 등

NAVER 광희기치료

접수문의 010-8589-2679
충남 논산시 계백로 1012 (터미널 근처 차부약국 옆 2층)

빛과 자각의 연금술 저자

빛을 직접 몸, 마음, 영혼으로 체험

내안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치유 에너지



삶과 불성을 여는 마스터키를 자각선원에서 찾아보십시오.

자각선원은 가슴을 깨워 내면의 불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1. 전생치유, 빙의, 우울증, 정신병, 영가장애, 신병, 무속병, 조현병, 원인을 알수없는 특이한 질병
2. 굿과 천도제로 해결 안되는 영적인 문제
3. 수십년 수행해도 진전이 없는 스님, 보살님, 수행자
4. 가슴이 찢어지게 아팟던 한과 집착 정화 수행, 돈에 대한 한, 관계의 한, 권력의 한, 명예의 한, 사랑에 대한 한, 성에 대한 한으로 정신, 마음에 고통받으시는분
5. 가슴에 한과 집착을 내려 놓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 하고 싶은 분
6. 모든 질병, 고통, 아픔은 감정이 썩어 부정이 물질화된 고통체가 원인, 노여움, 서러움, 부러움, 두려움, 소유욕적인 사랑 가슴 정화 수행
7. 직접 몸,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슴정화, 치유수행
8. 차크라 개발 수행 잠재능력 개발
9. 마음 영혼치유사 제자 양성과정

자각선원

책 구입 및 교육, 치유 문의 010-9242-5259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43번길 22번지 202호 자각선원
책은 알라딘, 예스24, 교보에서 판매중입니다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② 제다에 대하여

제다법 변화, 차문화 발전 원동력

차를 만드는 공정 과정을 제다(製茶) 혹은 조다(造茶)라고 부른다. 이는 뜨거운 솥이나 수증기를 이용해 찻잎을 찌거나 덖어 말리는 과정을 아우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제다 과정에서 찻잎을 찌거나 덖는 연유는 무엇일까. 바로 뜨거운 불이나 수증기를 이용하여 생 찻잎이 지닌 독성을 중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다의 정의는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차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론 너무 쓰거나 떫은맛을 지닌 생잎을 화후(火候)로 조절하여 차의 오미(五味)를 풍성하고도 조화롭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울러 좋은 차를 항상 보관해 두기 위한 것도 제다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완성된 차의 모양에 따라 덩이차(餠茶), 단차(團茶), 산차(散茶), 혹은 초차(草茶)라고 부른다. 병차와 단차는 덩이차 종류로 당송 시대와 신라, 고려시대에 음용했던 차의 종류이며 오늘날 흔히 접할 수 있는 잎차는 산차, 혹은 초차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좋은 차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열망은 차 문화사의 큰 흐름이기도 하다. 좋은 차를 얻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시도되었는데, 이는 오랜 경험과 시도로 노하우가 쌓임에 따라 차의 진수를 드러낼 묘수를 얻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얻어낸 제다의 묘수는 다서(茶書)를 통해 확인되는데 그 첫째 조건으로 친자연적인 차나무의 생육환경에 주목했다. 그들은 색, 향, 미, 기세가 좋은 차를 얻기 위한 조건은 바로 계곡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했으며 바위가 있는 곳에서 자란 차를 귀하게 여겼다.

이들은 계곡이나 바위가 있는 곳은 차나무가 습윤한 생육환경에서 자라야 좋은 차 싹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 바위가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는 지역임으로 물 빠짐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옛사람들이 바위가 부서진 곳에서 자란 찻잎을 좋다고 인식한 배경에는 천지의 순수한 정기(精氣)가 뭉쳐진 것이 바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차나무의 생육 조건은 맑고 빼어난 정기를 품고 있는 자연환경이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차를 따는 시점과 찻잎의 익힌 정도에 따라 좋고 나쁜 차의 품질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차를 따는 시점의 적절성은 좋은 차(茶)와 질이 낮은 차를 결정하는 조건이며, 딴 찻잎을 잘 선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찻잎을 어떻게 익혔는지는 좋은 차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최대의 변수이다. 불(火候)의 온도 변화를 간파하여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차의 진수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제다의 발달사는 화후로 귀결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차싹을 찌는 모습.

좋은 차 얻기 위한 노력들 통해
제다의 묘수 발견…茶書에 기록
당나라 유학승들 덩이차 전래해

옛 문헌인 〈봉씨견문록〉에는 채다(採茶) 시점에 따른 차의 명칭을 "일찍 따서 만든 것을 차라고 하며, 늦게 딴 찻잎으로 만든 차를 명이라 한다(早采者爲茶, 晩采者为茗)"고 하였다. 물론 좋은 차를 얻기 위한 옛사람들의 노력은 제다법을 변화시킨 요인이다.

그러므로 제다법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차를 끓이는 법도 자다법(煮茶法), 팽다(烹茶), 점다(點茶), 전다(煎茶) 등으로 변화되었다. 제다 방법의 변화란 탕법이나 찻그릇의 쓰임새, 크기와 색상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옛사람들의 시문(詩文)에는 시다(試茶), 혹은 시(試)라는 단어가 보인다. 이는 차를 끓인다는 의미이다. 원래 시(試)란 잠시, 떠보다, 살피다, 비교해보다, 검증하다, 익히다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차를 끓이다'는 의미를 시다(試茶)로 표현하였으니 이는 차를 끓이는 일을 '살피고 비교하며, 검증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보는 연유는 바로 차를 잘 끓이는 것이란 바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공부 방법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우선 차를 잘 끓이기 위해서는 좋은 차를 선별할 수 있는 감식안이 있어야 하며, 차의 색, 향, 기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물을 판별하여 준비해야 한다. 물은 차의 몸이고, 차는 물에 의해 드러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 물을 잘 끓여서 차의 진수(眞髓)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센불(武火)과 여린 불(文火)을 조절하여 너무 끓거나 덜 끓지 않은 상태, 즉 차의 좋은 성분이 잘 용해될 수 있는 조건, 물의 온도 순숙의 상태를 간파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다관과 찻잔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물론 차의 색, 향, 기미를 담아낼 수 있는 찻그릇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 한 잔의 차를 얻기 위한 조건이란 좋은 물과 불, 차와 물의 양, 침출 시간, 차의 온도 유지 등 그 적합성을 파악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다(試茶)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아우른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차가 소개된 것은 대략 7세기경 무렵이다.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신라스님들은 차와 융합된 새로운 수행법을 익힌 후 귀국하면서 차를 가져왔으니, 이들이 가져온 차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했던 덩이차(餠茶)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차문화 유입 초기의 상황은 최치원(857~?)이 쓴 〈진감화상비명〉에 "중국차를 받치는 자가 있으면(有漢茗供者)"이라고 한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진감 국사(774~850)가 당나라에서 829년(태화 3) 귀국한 후 화개 옥천사에서 수행했다는 점에서도 그가 언급한 한명(漢茗)은 8~9세기경 당에서 생산된 덩이차였음을 말해준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④

1. 불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불교는 업사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불교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제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③ 불교는 무아를 설하지만 참다운 나를 찾고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④ 불교는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어 하늘세계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추구한다.
⑤ 불교는 금욕수행을 통한 해탈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인내를 강조한다.

해설 : 불교는 업사상을 인정하며, 깨끗한 믿음 위에 진리를 깨달아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하늘세계에 태어나더라도 다시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다른 고통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음으로 하늘세계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해탈은 맹목적인 금욕수행만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으로 고통에 대한 인내(고행주의)를 넘어서 중도를 실천하여야 한다.

2. 불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처님의 가르침은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
②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
③ 부처님의 가르침은 존재의 독자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④ 부처님의 가르침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음과 이해가 일치한다.
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지만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시한다.

해설 : 부처님이 가르치신 인과의 법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객관적이며 보편적임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인과는 원인과 결과로 자신의 행위가 다른 존재에게 미치는 영향, 자신이 다른 존재에게 받는 영향에 따라 그 원인과 결과가 정해짐으로 타인들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 완전히 독자적이며 모든 것을 배타할 수 있는 존재란 없다.

3. 불교의 종교적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② 불교는 마음의 정화를 중시하는 종교이다.
③ 불교는 절대자의 구원을 중시하는 종교이다.
④ 불교는 지혜를 터득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이다.
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인 무명을 벗어나고자 하는 종교이다.

해설 :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터득하며 자비를 실천하여 고통의 원인인 무명을 벗어나고자 하는 종교이다. 그렇기에 불교는 절대자의 구원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4. [보기]의 내용 중 불교적 가치관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현재의 힘든 삶을 숙명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ㄴ.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간다.
ㄷ. 모든 것을 우연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현실의 삶에 순응한다.
ㄹ. 모든 일에는 그러할 만한 원인이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ㅁ. 모든 괴로움을 자신의 무지와 이기적인 욕심의 결과로 여긴다.

① ㄱ, ㅁ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해설 : 불교는 정해진 운명이나 신의 뜻, 우연 등을 배제하고 모든 일을 인과로서 설명한다. 그럼으로 자신이 받는 고통은 주로 자신이 이전에 무지와 이기적인 욕심으로 한 행위들의 결과로 여겨진다.

5. 불교의 인간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인간은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원죄를 지닌 존재로 본다.
②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있으며 규범적 측면에서 인간다움을 찾으려 하고 있다.
③ 인간의 심성은 본래 맑고 깨끗한 것이지만 무지와 탐욕에 의해서 '고통(苦)'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④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늘의 기품과 땅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부여받은 중간적 존재자로 본다.
⑤ 수기(修己)와 수양(修養)을 강조하며 고도의 수양을 쌓은 사람을 군자(君子), 또는 성인(聖人)이라 부른다.

해설 : ①은 기독교의 인간관이고 ③, ④는 유교의 인간관이다. ②의 경우 불교는 자연이든 인간이든 인과의 관계로 설명함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불교는 본래 청정한 마음에 무지와 탐욕 등의 번뇌가 일어나 고통이 생긴다고 본다.

정답 : 1.③ 2.③ 3.③ 4.③ 5.③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동호 불교용품 물류센터입니다.
저희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할인

기간 : 23년 12월 4일~24년 1월 31일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 십만원 이상 구매 시 인근 지역(포항,경주,영천) 배달 해드립니다.

1층 / 2층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를 검색하세요.

삼베 ,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3,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중국산
밀대 50개 55,000원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식물성 양초 특제품 (흰색,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20개 ····· 70,000원
5일초 24개 ····· 80,000원
3일초 40개 ····· 80,000원
1일초 100개 ····· 90,000원
15일초 12개 ····· 110,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5,000원
15일 ····· 80,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 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 12,000원)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 대표번호 : 054-762-8200 ■ 문의전화 : 010-9748-3366
■ 계좌번호 :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새마을 9003-2562-87257 (임건순) • 기업은행 010-2082-2100 (임건순)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❷ 성화 스님의 팥칼국수



▶한줄 요약
팥죽은 동짓날을 대표하는 먹을거리지만 팥칼국수는 동짓날이 여러 날 지난 후에 슬그머니 나타나는 별미였다. 깊고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는 녹진한 국물과 쫄깃한 칼국수 면이 어우러진 그 맛은 쉽게 만든 음식은 결코 전할 수 없는 충만함이 있다.

세상 어둠 물리치는 '붉은 힘'

겨울이 깊어지면 동글동글 붉은 팥알을 모아 보글보글 끓이기 시작한다. 삶은 팥의 구수하고 달큰한 향기가 사방을 채울 때면 어느새 겨울의 냉랭한 얼굴도 조금은 유순해지기 때문이다.

시간을 들여서, 오랜 시간 뭉근히 끓여 내야 하는 팥은 온기도 그만큼 오래오래 남는 법이다. 끓는 솥단지의 열기가 공간을 데우고, 구수한 냄새에 취해 노곤해질 즈음이면 어느새 동장군마저 곁에 앉아 졸고 마는 시간. 지독한 겨울밤의 냉기도, 깊은 어두움도 어느새 그렇게 지나쳐간다.

빛과 생명력의 상징, 팥

우리에게 팥은 단순한 먹을거리를 넘어 좀 더 큰 임무를 지닌 것이 분명하다.

'귀신은 붉은 색을 싫어한다'는 오랜 속설과 함께, 팥은 타고난 본연의 붉은 색 덕분에 예로부터 귀신과 역병을 쫓는 특별한 의무를 다해왔다.

6~7월에 첫 파종을 하여 한여름 태양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성장하는 곡식. 그 힘을 농축시킨듯한 검붉은 팥을 옛사람들은 특별히 여겼다. 그런 이유로 제사나 차례상에는 되도록 붉은 팥떡을 피하고, 또 반대로 어린아이의 생일에는 수수팥떡을 하여 건강을 기원한다. 이삿날이나 새로운 터를 닦을 땐 팥시루떡을 나누거나, 소금과 팥을 뿌려 잡신과 부정한 기운을 쫓아내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해가 짧은 동지(冬至)는 팥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밤이 길어 음의 기운도 가장 성한 날. 붉은 팥죽을 한가득 끓여 치성을 드리고, 먹고 나누며 양의 기운을 채우는 것. 그것은 벽사(辟邪)의 기능과 함께 다가올 한 해 동안 집안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동지는 어쩌면 24번의 절기 중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인지도 모른다. 동지의 밤이 지나는 순간,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태양은 기적처럼 겨울로부터 제왕의 자리를 탈환한다. 이제 밤은 짧아지고 낮은 길어지며 한낮의 태양은 오래오래 그 힘을 자랑할 것이다.

길고 긴 밤을 지나 태양이 부활하는 때, 팥은 다시 한 번 푸르른 생명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절식(節食)인 것이다.

그리운 사람을 닮은 음식

"저는 겨울 하면 팥칼국수, 팥칼국수 하면 저희 상노스님이 떠올라요."

큰 눈이 반달이 되도록 환하게 웃으며 말을 꺼내는 성화 스님. 종로구 안국동에 자리한 한국사찰음식체험관에서 만난 날, 스님은 따뜻한 차 한잔을 앞에 두고 기억 속의 그리운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놓는다.

동진 출가로 어린 나이에 불가와 인연을 맺은 성화 스님에게 사찰음식은 말 그대로 추억의 집밥. 그런 스님에게 겨울의 국수는 단연 팥칼국수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에는 상노스님과 함께 했던 어린 날의 추억이 머무른다.

"동화사 내원암에서 주석하신 상노스님은 입적하시기 전까지 동화사 호랑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엄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스님과 함께 살았던 그때, 겨우 열 살 남짓했던 저에게는 언제나 친절하고, 자비로운 분으로 기억됩니다."

수행에 방해되거나, 대중 화합을 깨고 법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제자들에게 거침없이 불호령을 내렸던 상노스님. 하지만 성화 스님은 어릴 적 자신의 이름만은 한없이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

동짓날 팥물을 조금 남겨 칼국수로
소금 설탕 넣고 동치미와 한 그릇
완벽한 겨울 한 상 훌륭한 보양식
사찰 겨울 팥, 추위 이겨내는 마음

"어른스님들께 전해 듣기로는 상노스님께선 화를 내시다가도 홍두깨로 국수를 밀고 있으면 슬며시 웃을 만큼 국수를 좋아하셨대요. 겨울에는 만두 경, 여름에는 칼국수 경을 읊는다고 농담하실 만큼요. 승소라는 말이 딱 맞지요(웃음)."

팥죽은 동짓날을 대표하는 먹을거리지만, 팥칼국수는 되레 동짓날이 여러 날 지난 후에 슬그머니 나타나는 별미였다.

"동짓날 절에서 팥죽을 쑤고 나면 팥물이 조금씩 남기도 해요. 산중에 한겨울이니 냉장고에 넣을 필요도 없이 바깥에 두면 꽁꽁 얼지요. 그 팥물을 잘 두었다가 거기에 국수만 훌훌 넣고 끓이는 거예요."

동지 불공을 올리고 사부대중이 한데 모여 팥죽을 나누어 먹는 것은 사찰의 중요한 의식. 그때 남은 팥물은 훌륭한 영양식이 되어 다시 한 번 모두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곤 했다.

공양간에 무심히 놓여 있던 정겨운 팥칼국수 양푼, 그리고 식어서 굳어버린 팥칼국수도 최고의 별미처럼 맛있게 드시던 상노스님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한, 따뜻하고 아련한 겨울의 전경이다.



성화 스님은 팥칼국수를 만들며 "공양간에 무심히 놓여 있던 정겨운 양푼, 식어서 굳어버린 팥칼국수도 최고의 별미처럼 맛있게 드시던 어른스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면서 따뜻하고 아련한 겨울의 전경을 떠올렸다.

성화 스님의 팥칼국수



재료 팥 1컵, 물(팥의 6배 분량), 칼국수면

만드는 법
1. 팥 1컵을 최소 반나절 동안 물에 불려준다.
2. 불린 팥을 끓인 후, 첫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담아 다시 삶는다. 처음에는 센 불로, 한소끔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오래 뭉근하게 끓인다.
3. 삶아진 팥을 식힌 후 믹서기나 블렌더로 갈아준다.
4. 곱게 갈린 팥은 체에 걸러 깔끔한 팥물만 받아낸다.
5. 걸러낸 팥물에 칼국수 면을 넣고 끓인 후, 소금 간을 하고 설탕을 함께 낸다. * 깔끔한 맛을 원하면 면을 따로 삶아 넣고, 되직한 것을 좋아하면 밀가루만 털어내고 함께 끓인다.

모두의 힘이 되어줄 한 그릇

"팥칼국수나 팥죽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팥물을 준비하는 과정이지요. 먼저 잘 고른 팥을 미리 불려서 삶는데, 떫은맛을 없애기 위해 끓여 낸 첫물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약한 불에 아주 오래오래 삶아주어야 해요. 그걸 맷돌로 곱게 갈아낸 뒤, 거름망에 걸러내어 맑은 팥물만 다시 끓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맷돌 대신 믹서기를 사용해 품이 덜 든다 해도 팥물 내기는 여전히 수고로운 일이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반드시 알게 된다.

김이 펄펄 나는 팥칼국수에 소금과 설탕을 취향껏 넣고, 짝꿍인 동치미와 묵은김치를 더해 한 그릇 뚝딱 해치우면 그야말로 완벽한 겨울 한 상. 깊고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는 녹진한 국물과 쫄깃한 칼국수면이 어우러진 그 맛은 쉽게 만든 음식은 결코 전할 수 없는 충만함이 있다. 특히 단백질과 섬유질은 물론 비타민B와 미네랄까지 풍부해 더없이 훌륭한 겨울 보양식!

"출가 후 운문사에 머물 때 정성껏 고른 팥을 머리에 이고 와서 공양을 올리던 노보살님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참 귀한 음식이구나. 팥죽 한 그릇이 참 귀하다, 하구요."

불공을 드릴 때나 동짓날이 다가오면 쌀과 팥을 한 알 한 알 골라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만 모아 공양을 올리던 노보살님들의 마음. 어쩌면 모든 것은 그것에서부터 시작임을 어릴 때는 알지 못했다.

마음이 힘이다

밤의 어두움 너머에 숨어있는 액운을 대자연의 기운을 받고 자란 곡식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고 맹목적일지 모르는 믿음은 때때로 어떤 실체가 되어 자신을 증명한다.

고려시대에는 '동짓날은 만물이 회생하는 날'이라 하여 살생을 금하고, 조선시대에는 가난한 백성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백성들에게 책력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책력은 별과 달, 하늘의 움직임과 절기 등을 기록한 책으로써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는 목숨처럼 귀한 보물이었을 것이다.

"옛날 전염병은 대부분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었어요. 봄, 가을처럼 따뜻할 땐 자연에서 채취한 것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겨울이 되면 그마저도 힘드니까요. 지금도 사찰에서 팥죽을 끓여 이웃과 나누는 전통은 양의 기운을 취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 겨울을 잘 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단한 역사 속에서 냉혹한 계절을 이겨낸 방법은 다시 돌아올 빛의 시간을 믿는 것. 그리고 보리심과 자비행으로 공생의 길을 열어 혹독한 시간을 끝내 함께 이겨내는 것이었다. 아득한 그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끝내 살아 이어온 이 땅의 뭇 생명이 바로 그 증거이리라.

오래전 상노스님께서 '스님 100명보다 네가 더 귀하다'고 품어주신 그날의 따뜻함. 내리사랑으로 전해진 은사스님의 보살핌까지. 붉게 여문 작은 팥알이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을 잠재우듯 그 반짝이던 기억이 제자의 오늘을 밝힌다.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이 겨울에 필요한 것은 오직 마음, 마음뿐이다.

〈작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대행 스님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작업을 하라

새해가 오자마자 이라크·페만 사건이 벌어지고, 뭐, 예견했던 바이지마는 그렇게 속성과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면 말이 안 되지마는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완성을 해야만이 외부의 모든 것들을 다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한마음은 빛보다 더 빠르다고요. 빠르게 오고 가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시대는 보는 것도 컴퓨터나 미사일이나 또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두루 하면서 보는 그 견해가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됐는지, 그 먼 거리를 눈앞에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정말이지 천체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앞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병고 액난에 휘달리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세균성이나 영계성 또는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이런 것을 다 여러분이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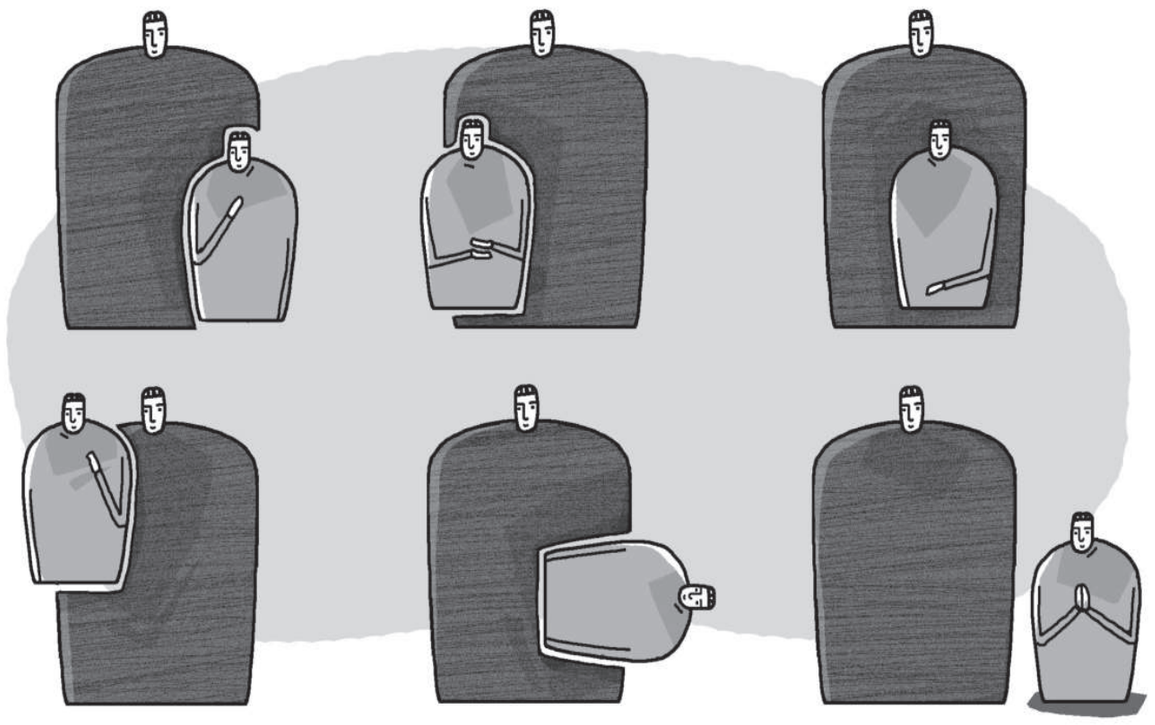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지금 이 세상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부터 완성해야 내 골수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팔만대장경이니 이 세상을 다 깨달을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점에 있어서 통달하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린 죽어서도 지금 현재 의식 그 그릇대로 남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만물이 허무가 아니라 무상(無常)이라고 했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숴지고 변해지고 죽고, 천차만별로 변화돼 가고 이럽니다. 그것은 허무가 아니라 무상이겠죠.

한마디 언급할 것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천체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인간 마음의 근본에 가설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혹성이라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은 바로 별성과 같은 거죠. 그러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색은 공하고, 공한 것은 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아십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렸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도 수차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는 까닭은 뭐냐고 또 묻고 그랬죠.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까닭 말입니다. 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동방에는 아촉으로 이름을 지어 놓고 서방에는 아미타로 지어 놓고, 사바세계는 관세음으로 지어 놓고 지천국에는 지장으로 지어 놨단 말입니다, 이름을.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뿐이 아니라 천백억화신의 이름이 다 부처님의 마음일지언댄 어찌 여러분이 그 말만 듣고 이 이름에다가 빌고 저 이름에다가 빌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참마음은 발견하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가면서도 자기를 완성 못 하고 항상 헤매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그뿐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볼 때 지금 이라크 문제도 욕심이 과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처님이 나신 고장에도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한 번 두 번이나 봐줬지 세 번은 봐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착이 있으면 욕심이 붙고 욕심이 붙으면 일을 저지르는 거죠. 너무 과한 욕심은 부리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키우는 데도 여러분이 모범이 돼야 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른다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빗나가고 그게 뭉치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엘 가니까 어머니는 아침에 나가고 아버지는 저녁에 나가고 그러니, 애들 얼굴은 이틀에 한 번 보고 사흘에도 한 번 보고 이런 집들이 허다합디다. 그러니까 애들이 방황하게 되고, 사랑에 굶주리고 고독한 그 마음에서 따뜻한 둥지를 찾아가느라고 나쁘게들 되는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는 엄마는 반찬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냉장고에다가 "너를 사랑해. 우리 식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는 일하러 나간다. 여기 이렇게 넣어 놨으니까 꺼내 먹어라. 사랑해." 하고서 고 쪽지에다가 써서 냉장고 거기다 붙여 놓고, 뽀뽀라도 하나 해서 거기 붙여 놓고, 허허허, 이렇하고서 나가면 아이들이 이탈되지 않는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몸으로써 몸소 붙잡아 주고 말해 주고 이래서 사랑이 아니라,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전달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손길이란 그렇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이어 가는 그 마음이죠. 거기에 자녀들과 남편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서로 화목하게 이루어 나가고 또는 이탈되지 않는 방법이 있죠.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욕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전력은 이 전구나 저 전구나 똑같듯이 우리의 마음들도 똑같이 아들이라는 그 가설, 또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설이 된 거죠.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거기서밖에는 화목하게 할 수 없다, 거기서밖에는 병고를 낫게 할 수 없다, 거기서밖에는 액난을 물리칠 수 없다, 유전을 물리칠 수 없다'고 믿고 모든 일체를 다 구멍 없는 구멍에 맡겨 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화목을 가져오고 사랑을 가져오고, 이탈을 안 가져오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공부를 잘 하게 되고, 정신력이 아주 투철해지고, 모든 물리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행복이 오는 거죠. 요거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놓고요.

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아니라면 모두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몸속의 공장이 많이 있죠. 그 공장을 이끌어 나가는 한마음의 지배인한테다 맡기고 놓는 작업을 한다면 그게 한마음으로 돌아져서 어떠한 파업이 일어난 회사도 정돈이 되고 또 능률이 생기고 가동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병고액난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보살의 이름이 있는 걸 볼 때, 부처님께서는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면서 삼십이응신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처님이시다 이런 거죠, 보살들도 그랬고. 그 보살이 삼십이응신으로 받아들이고 또 천백억화신으로 나투시는 그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인간 마음의 근본에 가설돼 있다

☞ 19면에서 계속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표현하려면 여러분 중 어떤 한 분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가 쉽겠군요. 처음에 어느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됐겠죠. 손주로도 되고요, 이름이. 손주도 되고 아들도 되고 사위도 되고 또는 형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름이 많으시죠. 만약에 그분이 부처님이시라면, 부처님이 앉아서 볼 때 각기 다른 그 이름에다가 주욱 놓고 빌고, 잘되게 해 달라고 빌 때, 그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런 멍청이들, 저런…, 이름에다가 놓고 비는구나.' 이러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름에다가 놓고 비는 것도 비는 거지만 말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이 어떠한 이름으로 되실 때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부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아들로 되고, 나툰다는 뜻이 그런 겁니다. 화해서 돌아가는 거를 나툰다고 그러죠. 한 찰나 찰나 나투신다. 나툰다는 그 뜻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은 남편으로 있는데 애가 들어와서 "아버지!" 그러니까 금방 생각도 말도 행도 그냥 아버지로 하는 거예요. 아들로 됐을 때는 아들로서의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부처님 그 마음이란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나투시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셨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안 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지금까지 안 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그럼 언어가 왜 붙느냐? 사실은 어떤 언어도 붙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설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것도 그 뜻이고요.

그러니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한 뜻은 바로 그렇게 나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될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생생히 그것도 금방금방 나투면서 남편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또 아버지가 됐다가 이러는데 말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니 부처님의 마음으로 지어 놓은 그 이름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름을 또 안 지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서로가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달마 대사도 구렁이 속에 들어가서 구렁이를 저기다 끌어다 놓고서 와서 보니까 자기 몸이, 집이 없어졌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집도 도둑놈의 집이 아니라, 그 도둑놈의 집이나 달마 대사가 잊어버렸다는 집도 결국 달마 대사죠.

지난번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가 나와서 신도들이 봤다고 "스님, 좀 가서 봅시다." 그래요. 그래 가 봤습니다. 그런데 첫째 대목에 말입니다, 첫째 대목, 둘째 대목, 셋째 대목, 넷째 대목까지 이제 좀 말씀해 드리죠. 첫째 대목에 보면 현재 살던 의식이 죽고 나서도 살아 있는 줄 알아요. 즉 말하자면 관습 때문에, 관념의 습 때문에 죽어서도 죽은 줄 모르는 것이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주의 근본도 그렇지마는 이 법계의 소용돌이는 양쪽 구멍이 막힘이 없이 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바퀴가 돌아가고 물바퀴가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관습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서 항상 괴롭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뜨거워서 타 죽겠다, 물에 빠져 죽겠다, 높은 산이 있으면 '아이구, 저길 넘어갈 수 없겠구나.' 하는 이런 관습 때문이죠. 그래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또 그 구멍을 통과를 못 하고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학적으로 나타남이 얼마나 많이 있나.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한생각에 모든 중용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관습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괜히 창살 없는 창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곤 노예처럼 이끌려 가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쓰러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쓰러지고, 중심을 세우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맷돌에 심봉이 꿰어지지 않았으니 맷돌이 이탈될 수밖에요. 물건을 넣어도 갈려져 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죠.

지금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같은데 물질적으로만 끄달리면서 자기 중심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이 마음 자체, 하나의 근본에 의해서 그게 원자다 이런다면 거기서 입자가 나가고 나투면서 화해서 분자로서 화하죠. 천백억화신이다 이런다면 벌써,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을 십억, 아니 오십억이라도 되죠. 한 의식의 한 생각이 돌아가면 그렇게 많아지니까.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바퀴 속에 들고 나고 하는데도 그 관습 때문에 타 죽을까 봐 거길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영혼이 나와서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타 죽을까 봐 못 가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들어갑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생각이면 갈 거를 그렇게 빠져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의식이, 지금 세상에 살아 있는 의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렇듯이 아까 그 영화에서처럼 살아 있을 때의 산 의식으로 사람을 때리니 때려집니까? 붙잡으니 붙잡아집니까? 남이 문을 열어야만 들어갈 줄 알지 그냥 들어갈 줄은 모르는 거예요. 벽도 없고 봇장도 없고, 땅속도 깊이도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그 의식이 그렇게 관습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잡아도 잡히지 않죠, 때려도 때려지지 않죠, 뭐를 던져도 던져지지 않죠. 그러니 나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주겠습니까? 누굴 건져줄래도 어떻게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런 거, 고런 거 한 점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마음공부를 하는데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한생각이 빛보다 더 빠릅니다. 한생각이 전파를 통해서 전 우주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은 그게 뭔 소린지 도대체 납득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영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가 없는 마음인 줄 알면 그냥 문도 통과하고 벽도 통과 통과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강도 내가 한생각이면 건너가지, 내 한생각이 무심인데 어찌 강이 있겠습니까? 강이 없는데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건널 게 어디 있으며 '건넌다 안 건넌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천당도 지옥도 문지방 너머라고 안 그럽니까? 가깝고 멀고가 없다는 얘기죠, 한 생각 차이는.

그래서 그 한생각의 차이를 딴 영혼한테 알아 가지고서는 이제 그때는 마음을 모아서 하니까 되거든요. 그거는 알았는데 말입니다, 나툼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녔습니까, 예?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돌아다녔습니까? 그러면 자기 한생각이 열 개의 자기를 만들어서 한다면은 좋았을 것을, 나툼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나로 만들고 저것도 나로 만들고, 그랬으면 될 것을 나툼을 몰랐던 거죠. '만약 나툴 줄 알았더라면 자기 아내 건지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나툼은 나툼대로 못 했는데 또 그 윗단계, 나툴 줄은 안다고 하더라도 바로 나로 화할 줄을 몰라. 이걸로 화해야 이 무기가, 즉 말하자면 간장은 종지에다 담아야 되죠? 사발에 담는 사람 없죠? 그렇듯이 그 용도에 따라서 내가 화해야 되거든. 용도에 따라 그릇이 돼 주어야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그릇이 돼줄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열반계의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응해 줄 수가 없다. 삼십이응신으로서 나투어서 응해 줄 수 없다 이 소리죠,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 주지 못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지구나 인간이 살아나가는 것도, 지구를 보기 이전에 우리 몸부터 볼 때 몸속에 들어 있는 그 많은 입자가 한생각으로 돌아간다면 세균성이나 영계성, 또는 유전성도 그렇고 다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보현보살이면서 화신이라는 얘기죠. 생각하는 건 바로 법신이면서 문수고요.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도 않고 더하고 덜함도 없는 근본 심봉이라는 그 불성은 그냥 부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놓고 저기 놓고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작업을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목을 볼 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계에는 욕심이 많아서 싸움이 생기고 서로 쫓기고 쫓으면서 지금 난리 아닌 난리를 치고 가는 겁니다. 몸으로 찔러 죽여서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딴 나라도 그렇고 물질과 물질이 붙는 싸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알력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싸우고 가지 않습니까? 먹고 먹히면서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탈피하면서 대처하면서 충당하면서 나갈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마음 도리, 이 도리를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인간 자체의 자기부터 완성해야만이 모든 이치를 알고 일체 제불의 골수를 안다 이 소리죠.

항상 되풀이하지마는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자체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즉, 원자에서 한생각을 해서 수많은 입자가 나갈 때, 그 입자가 화해서 분자로 될 때, 우리 대기권의 모든 문제를 대처해 주고 들이고 내고 하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파를 통해서 모든 걸 알게 되는데, 보십시오. 전파를 통해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네 컴퓨터가 바로 그 숙명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이통, 신족통, 숙명통, 천안통 또는 타심통 이 자체가 모두를 한데 합쳐서 불바퀴라고 표현을 하죠. 불바퀴라면 지금 이 불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불바퀴를 굴리죠? 그런 거와 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입력을 해야 되고, 멀고 가까운 거리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한계가 없다는 얘깁니다. 저 쥐구멍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땅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허공이든 어디든 차이가 없고 거리가 없고 무한량이란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모든 일체를 다 구멍 없는 구멍에 맡겨 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화목을 가져오고 사랑을 가져오고 모든 물리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행복이 오는 것이죠.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1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NEW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⑧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마음챙김’이 트라우마 극복에 효과

영화 ‘소원’을 보고나서 가슴 깊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울적함으로 한동안 괴로웠다.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문득 영화 속 아이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머리를 세차게 흔들고 외면하고 싶었다. 영화 ‘소원’은 9살 소녀가 학교를 가던 중 술에 취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의 심리적 치유와 건강을 위해 가족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이 영화를 보고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수많은 트라우마 사건으로 평생을 괴롭게 사는 내담자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화 속 소원과는 달리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내가 하필 그때 그곳에 가서…”라며 자신을 책망하며 살아간다. 아무리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은 평생을 괴로워한다. 특히 갑자기 성폭행 장면이 떠오르면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어했다.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상황으로 괴로움을 겪은 후 앓는 심리적 증상이다. 사실 트라우마는 전쟁, 재난, 성폭력 등 갑작스러운 사고와 충격을 포함해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왕따 경험, 사별, 이별 등 일상 속에 마주하는 심리적 고통도 원인이 된다. 또한 전쟁과 사건사고 등 급작스러운 단일 트라우마(single trauma)보다 정서적 학대와 왕따 등 연속적으로 일어난 복합 트라우마(complex trauma)가 내담자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트라우마 사건 이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갑자기 당시 기억이 떠오르는 침투사고가 있으며 악몽을 꾸고 공포와 과잉경계, 과잉각성 등도 보인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수치심, 자기비난, 자기비판이 자동적 사고로 나타나며 분노와 우울, 무감동, 수면장애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특히 대표 증상인 침투사고(intrusions)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생각이 원치 않아도 불쑥 떠오르는 증상이다. 침투사고가 괴로운 이유는 플래시백(flashback) 현상 때문이다. 플래시백은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고 마음속에 재연되어 재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이르게 한다. 침투사고는 악몽의 원인이 되어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고 고통이 반복되게 만든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마음챙김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특히 침투사고로 고통스러울 때 도움이 되는 그라운딩(Grounding)은 유명하다. 그라운딩은 트라우마의 안전기반 치료로써 지금-여기 존재하도록 돕는 기술이며, 손의 촉감이나 발 감각을 확인하고 현재로 돌아오도록 돕는 기법이다. 또 치료 당시 내담자가 머물고 있는 방이나 공간에서 새로운 것을 천천히 관찰하도록 도와주면 침투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라운딩은 손쉽게 접근하면서도 효과가 빨라 트라우마를 겪은 내담자에게 효과적이다. 그 외 여러 증상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라우마는 갑작스런 사건 사고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일상 속에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고통이다.

고통스런 기억 반복되는 장애
삶의 의미 찾는 노력 따라야

책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트라우마 사용설명서〉의 저자 마크 엡스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살피며 “붓다의 이야기 핵심에는 가장 중요한 트라우마가 숨어 있다”고 했다. 마크 엡스타인은 정신분석과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붓다의 삶을 관찰했고 어머니인 마야부인의 죽음에 집중했다. 그는 좋은 환경이 붓다에게 주어졌지만 어머니의 죽음은 붓다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어머니의 부재로 공허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온 붓다가 정서적 고통의 원인인 트라우마에 직면해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서적 고통은 자각(awareness),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 유익한 결과물을 낳는다”고 말했다. 트라우마는 사성제의 ‘고(苦)’이며,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훈련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고통의 종식’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붓다는 안겨주었다.

트라우마의 고통은 잔인하다. 칼럼 주제로 적으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가볍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조심스럽고 걱정이 된다. 하지만 붓다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서 얻은 희망을 전하고 싶다. 트라우마는 분명 극복된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나치의 손가락 하나에 삶과 죽음이 갈리는 상황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대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쁨보다는 도덕적 결함을 보이고 비통함과 환멸의 시간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수용소에서 겪은 고통이 트라우마가 되어 나머지 삶을 지배한다. 하지만 그는 트라우마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학계에 새로운 이론인 ‘로고테라피’를 창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 의미치료로 불리는 이 로고테라피는 환자에게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고 그 의미를 향해 살아가도록 돕는다. 빅터 프랭클은 “왜(why)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how)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며, 삶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계속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극심한 고통이 삶의 숙명이라면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강한 생명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② 걷기에 대한 인식 변화

걷기, 건강·사색 어우러진 놀거리

걷기의 본원적 기능

걷는 것 자체가 생존이던 때가 있었다. 달리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만한 수단이라고는 절대 다수의 사람에게 두 다리가 유일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가 넘는 길을 한 달 남짓 걸려서 걸었다.

장사를 하는 보부상들은 이렇게 먼 거리를 상권으로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반경 50~60㎞ 정도로 하고, 근방에서 열리는 5일장이 그들의 활동 반경이다.

이처럼 생존을 위하여 걸을 수밖에 없었을 때는 걸어가는 그 자체에 대한 의식이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근세 이전의 문헌에서 걷는다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하게 언급되는 것은 사유하기 위한 도구로써 걷기일 뿐이었다.

걷는 것 자체가 행위의 주된 목적이 된 적은 없다. 군인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걸었고, 농부는 농토로 가기 위해 걸었고, 장사꾼은 장사를 하기 위하여 걸었다. 비록 걷기의 가장 본원적인 행위가 바로 장소 이동, 즉 교통 기능이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목적성을 가졌다거나 의미를 부여받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리적 범위가 넓어졌다.

걷기의 파생적 기능

걷기가 비로소 제 스스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모순적이게도 본질적 의미의 걷기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이다. 자동차가 거리를 점령하고 사람들이 100m 걷기도 힘겨워 할 무렵부터 걷기는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문명의 발전과 반비례로 잊혀가는 그리고 약해져가는 인간의 두 다리, 직립보행의 특성으로 받았던 혜택의 되살리기이기도 하다.

육체적 활동을 함으로써 육체와 정신의 합일을 시도하는 새로운 영적 행위가 되었다.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 위를 시속 100㎞로 달리는 자동차 덕분에 잊고 지냈던, 자연 속의 여행이라는 의미를 되찾아내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현대인은 건강을 위해서 걷고 명상을 위해서 걷는다. 이제 걷기를 노동으로 보는 시각은 없어졌다.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걷기

우선 치료 및 예방은 인간의 걷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발과 이와 연관된 부분의 신체가 퇴화해 유발되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다. 현대 의학에서 걷기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육체적 치료와 예방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료에도 걷기를 빼놓지 않는다. 걷기와 같은 중간 강도의 신체활동이 만성질환(생활습관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이동수단 다양화 되며 걷기 재조명
노동 아닌 건강, 명상 기능 부각돼
올레 · 둘레길 생겨나며 레저 활용

운동을 위한 걷기

걷기의 또 다른 기능은 운동이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으로써 걷기는 대체로 척추 교정 효과와 퇴화한 근육의 사용을 통한 인체의 건강 회복에 중점을 둔다. 이는 발의 기초 해부학 및 생리학, 전족 이상과 당뇨가 발에 미치는 영향, 신발 구조와 제조법 등을 통하여 의료적인 효과를 노리는 걷기이다.

항상 운동량의 부족을 느끼는 현대인에게 마라톤은 너무 힘들고, 자전거와 같은 운동은 도구가 필요한데, 그 사용 시기와 장소가 제약을 받아 일상적으로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걷기는 그야말로 시간과 신발만 있으면 되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명상을 위한 걷기

세 번째로 ‘삶의 새로운 가치 추구’는 위의 두 가지 기능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보다 더 높이, 더욱 더 빨리’를 밀어붙이는 현대의 삶에 반기를 드는 느림의 미학을 추구한다.

평소에 차를 타고 시속 100㎞로 휙 지나가던 곳을 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물의 모습을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고, 시속 3~4㎞의 속도로 바라보게 되며, 그러다 보면 사물에 대해 숙고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빠르게 살아가면서 잊어버린 자연과 풍광, 주변 삶에 대한 감상 능력을 되찾고, 느리게 걸으면서 세상에 대한 숙고와 존중을 터득한다. 이는 ‘자연을 밟지 말고 느끼자’라는 비바미의 맨발신발이 추구하는 바이다.

이제 걷기는 단순히 장소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복고풍 교통수단이면서, 철학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한 사유의 수단인 걷기. 지금은 걷는 것 자체가 유행하고 있다. 현대 걷기의 가장 유별난 특징은 레저로써, 즐기기 위한 스포츠로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올레길, 둘레길, 마을길, 산책길을 걷는다. 풍광이 좋은 곳이나 교차로 지점에는 걸어서 방문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스티커에 도장을 찍는 놀이도 생겼다. 시멘트로 꽉 찬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즐기며, 인간이 사는 곳에서의 이야기를 즐기며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 걷기는 이제 생존은 물론이고, 건강과 놀이와 사색이 어우러진 놀거리이다.

〈비바미(Viva!me) 대표〉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출강 및 통신 2024학년도 제33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양성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3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 02)733-1959
720-1836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4년 2월 20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전법 일기

하루하루 변해가는 초등학생 천진불들

어느 날 해질 무렵 개천가를 거닐고 있었다. 징검다리 저 멀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이 나를 보더니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며 건너왔다.

"스님은 어디 살아요?"

"절에 놀러가도 되냐"고 물으면서 옆에 있던 엄마와 어린 동생을 뒤로한 채 졸졸 따라오는 아이.

"스님! 삭발은 왜 해요? 친구는 있어요? 뭐 먹고 살아요?"

호기심 가득,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질문을 퍼붓는 아이가 새삼 반가웠다. 아이는 "나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겠다"며 웅장원을 둘러보고 갔다. 다시 찾아올 아이를 위해 법당에 간식 코너도 만들고, 냉장고에 아이들이 좋아할 음료를 꽉 채워놓고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다.

하루는 사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유리창 너머로 초등학생 서너 명이 자전거를 끌고 웅장원을 향해 손짓하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쿠, 오늘은 천진불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하고 죽비로 마지를 모시는 찰나에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힘차게 인사하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들. 반갑게 맞이하며 다시 보니 초하루법회에 할머니 손잡고 종종 오던 아이였다. 그때는 낯을 가리며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그 아이가 오늘은 친구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닌가.

다음날 아침 7시. 책상에서 우연히 CCTV를 보는데, 잠긴 출입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장 달려온 것 같았다. 자다 깨서 바로 왔는지 머리에 생긴 새집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아침밥을 같이 먹은 뒤부터 여름방학 내내 동네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아침 7시 웅장원에 출석도장을 찍었다.

처음에는 아마도 간식 때문에 신나게 찾아왔을 천방지축 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차츰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연꽃 같은 지혜를 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다툰 친구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고민을 풀어놓았고, 웅장원에 오지 못할 때는 문자 상담을 이어갔다.

어떤 때는 살아온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런저런 상황이 낯설 수 있는 아이들이 자기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마음챙김이나 '인과'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 대견했다.

감정 통제가 어려운 아이는 생각하는 의자에서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친구들과 다 같이 기다려주고, 시간 약속 관념이 없는 아이에겐 사회생활의 기본이자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도 했다.

'얼음이 담긴 물잔엔 그저 얼음물이 있을 뿐, 얼음물이 좋다 싫다 분별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

아이들은 그렇게 슬기로운 웅장원 생활을 경험하며 하나씩 소중한 천진불로 성장했다.



통도사포교소 웅장원
덕현 스님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① 부처님의 하이파이브

네가 없는데 어찌 내가 있을까

동아리 학생들과 한 해 수업을 마무리하며 더 잘하자는 의미로 하이파이브를 했다. 서로 한 손뼉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는데, 의외로 합이 맞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 놀랐다.

그중 한 아이는 여러 번 하이파이브를 시도해도 도무지 손뼉의 합이 맞질 않는다. 도대체 왜 이런 간단한 손뼉 인사가 되지를 않는가. 퍽 당황스러웠다.

다음날 수업시간에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몇몇 아이들을 불러내 다시 하이파이브를 시도했다. 마찬가지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냐고 물으니, 아이들이 대답한다.

"선생님이라 어렵고 부담돼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키가 다르니까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대답이 쏟아진다.

"아니, 다 맞는 말이지만 진짜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렵고 부담되기 이전에, 마음을 맞추기 이전에, 키가 다르다는 걸 알기 이전에, 이 앞에는 대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경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은 꼭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그에게 주의를 기울여도, 다른 상대가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코 손뼉은 마주칠 수 없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전할 수 있나요.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바로 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동아리 학생들과 하이파이브 인사
합이 맞지 않는 아이들 많아 놀라
상대 마음 맞추기 전에 경청 필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에 집중해보자

요즘 아이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좋거나 밉거나 같은 반이면 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딱히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엄마, 우리 반 친구 중에 진짜 짜증나고 재수 없는 놈이 있는데 말이야…'처럼 미워하면서도 그 바탕은 항상 친구라는 생각이 먼저였다.

소개팅을 하기도 전에 MBTI로 나와 다른 사람을 먼저 거르는 시대가 왔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항상 비슷한 콘텐츠만을 추천해 나를 거대한 우물 속 확증편향된 개구리로 만든다.

내가 수많은 비슷한 나로 중첩되어봤자 고작 나 하나의 시선일 뿐인데,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안다. 고통 없이 성장하길 바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풍부한 어휘라고 자랑한다.

물질이건 정신이건 생명의 기본은 다양성이다.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생겨야 저것이 생긴다(此生故彼生)." 이러한 자각 뒤에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此無故彼無),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此滅故彼滅)"는 자비심이 일어난다. 지혜와 자비의 이치를 담은 부처님의 '연기송(緣起頌)'이 바로 귀를 만든다. 귀가 없는데 어찌 말을 전할 수 있으며, 네가 없는데 어찌 내가 있겠는가. 거대한, 부처님의 하이파이브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부처빵 논란'과 종교 감수성

경북 경주의 석굴암 본존불상을 본떠 만든 일명 '부처빵'이 불교계 모욕 논란에 휩싸였다. 부처님 얼굴을 형상화한 빵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포장 가방에 적힌 성경 구절이 비판을 키웠다.

발단은 1월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교를 도발하는 경주 부처빵'이라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되면서부터다. 부처빵 판매자가 제품의 포장 가방에 'ACTS 19:26'이란 문구를 새겼는데, "불교계를 우상숭배 종교로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해당 문구는 성경의 사도행전 19장 26절을 의미한다. 이 구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라는 내용이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주요 일간지는 이같은 논란을 앞다퉈 보도했고, 비판 여론도 들끓었다. "성경구절로 불교를 조롱하고 있다" "타인의 종교를 폄하하다 못해 저주하는 행태다"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부처빵 판매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무교지만 부처님을 모욕할 마음은 없었다"며 "앞으로 구절은 삭제하고 판매하겠다"고 해명했다. 판매자는 "빵일 뿐 신이 아니다. 마침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라는 성경 구절이 있길래 포인트로 넣어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매자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다. 왜일까. 이는 국민 모두가 '종교 감수성'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종교 사회 속 종교 간 평화 유지와 공존을 위해선 상호 배려가 필수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미국 및 서구의 다문화·다민족 국가에서 타종교인을 배려해 '메리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대체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부처빵 판매자는 스스로 '종교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의도가 어땠던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불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셈이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종교 감수성'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사고가 집어삼킨 다리…
남은 건 치료비와 병든 아버지

스리랑카 이주민 시란씨, 손가락 이어 다리마저 절단
4000만원 병원 빚 감당 못해 퇴원…하루 한 끼로 버텨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전법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거룩하신 부처님,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는 가르침을 큰 원력으로 삼겠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매일매일 정진하면서 전법과 포교에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많은 대중이 이미 기억하고 또 새기고 있을 것이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순례와 동참의 원력을 모아 한마음으로 새겨낸 '상월결사 108원력문'의 마지막 구절이다.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한국 불교대중의 원력으로 삼겠다는 다짐이 고스란히 이 한 구절에 담겨있다.

1월 16일, 상월결사를 이끌어 온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49재가 엄수됐다. 최근 몇 년간 스님이 이끌어 온 상월결사의 행보는 '전법원력의 일념'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법원력이 올올히 모여 새로운 전법, 새로운 원력으로 나아가는 계기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무시무종(無始無終)!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문장의 의미를 다양하게 읽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반드시 그러해야 삶의 본래적 모습'이라고 읽는다. 빈부귀천을 떠나 저마다의 삶이 그대로 온전히 존중받고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의 본래적 현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성취해야 하는 삶의 본래 모습이다. 부처님의 전법원력도, 역사 속에 등장했던 다양한 불교전통이 추구했던 전법원력도, 그리고 상월결사의 전법원력도 여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전법을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 늘 꿈꾸었던 것이지만 막상 그 원력을 모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한국의 불자라면 누구나 그 원력의 한걸음을 내딛고 있었지만, 그 원력의 방향을 한데 모아서 내딛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구체적인 행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자승 대종사 강조한 '대학생 전법'
불교, 고민 함께하는 열린공간돼야
매일 전법 다짐하는 불자 늘었으면

다행히도 지금의 한국불교는 구체적이면서도 절실한 화두를 손에 들고 있다. 대학생 그리고 청년 전법이다. 상월결사를 중심으로 교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생·청년 전법 사업이다. 불교의 미래를 꿈꾸는 일이기도 하지만, 대학생·청년들에게 손을 내밀어 맞잡아 주는 사업이기도 하다.

상월결사를 선두로 해서 교계의 많은 고민들이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종립대학교인 동국대에서는 이미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불교와 대학생·청년이 상생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기금, 건학장학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 각 대학 불교동아리 활성화를 목표로 한 인적 물적 지원 방안이 상월결사에 의해 강구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원력이 구체적인 행보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행보가 단순히 청년 대학생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지원자가 되어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행보가 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 일부에 붓다의 가르침이, 만나는 인연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씀씀이가 터전처럼 남아 있었으면 한다.

그런 마음이 전법을 다짐하는 불자들의 마음에 매일매일마다 원력으로 꿈틀거렸으면 좋겠다. 매일 매일 달이 떠서 중생 곁을 떠나지 않듯이.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세간과 출세간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신라에서 태어난 조선 시대 장군입니다."

이순신이 누구냐는 질문에 챗GPT가 내놓은 그럴듯한 오답이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해결 능력과 편의성 이면에는 진짜 같은 가짜 망상(Hallucination)이 도사린다. 생성형 AI 기술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 문제, 윤리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야기된다. 어디 인공지능뿐이랴!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서 배설되는 가짜 영상, 가짜 뉴스들은 우리 삶을 심각하게 황폐화시키고 있다.

가짜 문제는 깨달음에도 만연한다. 붓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깨달음인지 팩트체크가 쉽지 않다. 필자는 몇 년 전 남인도 순례길에 티베트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수만 명의 스님들이 공부하는 승원의 규모도 놀랍지만, 동자승을 비롯해 30년 가까이 공부하는 학승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시간씩 진행되는 필수과목인 '딱샐'이라는 공부법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딱샐은 6세기 다르마끼르띠의 인명논리학을 기반으로 체계화된 공부법이다. 선문답과는 달리 붓다에 의해 확정된 논리에 의거한 대론식 교육법이다. 딱샐은 마치 싸움을 벌이는 듯한 토론 형식을 취하는데, 어느 한편이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에 빠져 항복할 때까지 주장과 반론은 숨 쉴 겨를 없이 이어진다.

정보과학 관점서 존재란 정보
윤회도 정보의 상속일 뿐이다

의문이 생겨 물었다. 이치를 논리적으로 따질 때는 여유롭게 사유하며 차분히 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뜻밖의 답이 온다. 대론은 생각할 틈 없이 몰아붙이는 속도전이란다. 정견 분석이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사유의 습관화란다. 정견을 뼛속 깊이 각인시킴으로써 더 이상 가짜의 노예로 살지 않으리라는 간절함이 엿보인다.

자아에 관한 이들의 사유방식을 잠시 살펴보자. 먼저 불변하는 자아, 전체자적 자아, 자재한 자아, 그런 자아는 진짜가 아니란다. 연기적이지 않은 독립적 자아 또한 가짜란다.

온통 가짜라고 부정하는 듯하지만, 반대로 가짜 같은 진짜도 있단다. 업보, 생사, 윤회, 깨달음, 해탈은 물론 자아도 진짜란다. '이름뿐인 자아!' 어이없지만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진짜 자아란다. 그것이 실재로 성립하기에 생사도, 업보도, 윤회도, 깨달음도, 해탈도 진짜란다. 한편 현대과학은 어이없어 보이는 이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님이 증명되고 있다. 양자역학 관점에서 대상과 관찰자 모두 정해진 바 없는 연기적 현상이다. 정보과학 관점에서 존재란 정보에 다름 아니며, 윤회는 정보의 상속일 뿐이다. 일체가 실체 없는 이름뿐이지만, 연기적 작용력은 명백히 실재한다는 결론이다. 이름하여 '무아'요, '공성'이다.

중도의 가르침은 듣기 좋으라는 빈말이 아니다. 진짜와 가짜에 대한 명확한 팩트체크를 통해 망상을 벗어나라는 준엄한 가르침이다.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망상이 양극단이다. 양극단만 제거하면 실상이다. 찬드라끼르띠의 〈입중론〉 구절로 마무리한다. '이름에 힘입어 멸제로 나아간다.'

社 說

국민 정신건강, 불교가 책임지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17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갑진년을 '선명상 보급'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조계종은 올해 하반기 국제선명상대회 개최와 함께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시범운영, 선명상 중앙지원센터 건립 추진,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계획을 내놨다.

"각박한 일상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각종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진우 스님은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결되도록 '선명상 템플스테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지난해부터 전문가 회의를 이어가는 등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종단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종단의 정책 방향은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회 추세와 맞닿아 있다.

실제, MZ세대에게 도박 중독과 마약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국도박예방치유원이 사이버 도박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중독현상은 집착과 결핍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불교가 열어줄 수 있다. 불교 수행의 대중화로 개발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기대되는 이유다.

제2대 대통령실불자회장 취임에 부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2대 대통령실불자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통령실불자회는 1월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이관섭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덕수 스님,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 등 종단협 회원스님들이 참석해 이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이 회장은 "부처님 말씀대로 불교계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회적 현안 해결을 모색한다면, 위기는 우리에게 더 나은 기회와 또 다른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불자회는 앞으로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윤석열 정부의 불교 공약 이행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이 밝힌 '불교 공약 이행' 약속은 앞서 불거졌던 불교 홀대 논란 불식시키고, 정부와 불교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 불교계는 기독교 편향적 정부 인사와 송현공원 내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등으로 정부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양서 보급을 위해 국고를 들여 선정하는 '세종도서'에서도 종교 부분 도서들이 기독교 도서 일색인 것도 문제가 됐다.

국가 법령 제개정 등 불교계 현안들은 산적해 있다. 과거 대부분 수석들이 맡았던 대통령실불자회장을 이번엔 처음으로 비서실장이 맡은 만큼 더 활발한 소통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바닷속 거북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돌장승 노래 부르는 소리
온 천하에 울려 퍼지리!

신간

대행선사 게송 · 선시 모음집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

본 책자에는 선사께서 법회 때 읊으셨던 게송, 선법가 가사로 만들어진 선시,
편지글 속의 게송과 함께 친필 원고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가격: 20.000원 336쪽 엮은이_(재)한마음선원 출판부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적이야!

개정판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화제의 신간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